백두산

29호 - 주체91(2002)년 5월 13일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서울지역의 조국통일일군들이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편지

태양절에 즈음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서울지역의 조국통일용사들이 4월 21일 편지를 드렸습니다.

편지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조국과 민족,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해 높이 칭송하면서 그분의 한평생은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진보적 인류의 자주화위업과 우리 민족의 염원을 실현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바치신 절세위인의 불멸할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편지는 어버이주석님 그대로이신 **김정일**영도자님은 진보적 인류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는 탁월한 사상이론가이시며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으로부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신 희세의 영도자이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라면서 편지는 그분께서 주석님의 조국통일사상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식화하시고 6.15공동선언을 마련해주신데 언급했습니다.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마련하는 길은 장군님께서 우리 겨레에게 안겨주신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데 있다면서 편지는 공동선언을 확고히 거머쥐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전개하며 이에 역행하는 미제와 반통일세력을 가차없이 단죄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편지는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주체혁명위업도 조국통일도 이룩할 수 있다면서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는 승리의 영원한 기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군님과 뜻도 마음도 운명도 하나가 되는 여기에 거꾸로 매달려도 절해고도에 있어도 장군님만세를 외치며 그분앞에 다진 맹세를 기어이 실현해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

편지는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광휘로운 햇발아래 죽어도 살아도 영예로운 길, 자주화위업의 그 길에서 언제나 주체의 기치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5월 11일

남조선청년들이 편지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남조선의 청년들이 4월 21일 편지를 드리였다.

편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대전의 불바람 눈보라를 헤치시며 광복의 새봄을 안아 오시고 새 조국 건설과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세워 주신데 언급하였다. 편지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자주시대를 활짝 꽃 피워 주시였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마련하시여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겨레에게 조국통일의 확고한 신심을 안겨 주시였다고 편지는 지적하였다.

편지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이룩하시였으며 독특한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이북사회주의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신데 대해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5월 11일

2 종합
• 김일성화 전시회
•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 일본은 과거청산에 대한 옳은 정치적결단을 내려야 한다
• 일제의 범죄적만행을 절규
• 세계축구선수권대회를 계기로 한 미군무력 남조선 증파를 비난
• 반통일분자 리회창에 대한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

4 노작
•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3)

6 세기와 더불어
• 8장 2절 오의성과의 담판 (3)

7 칭송
• 장군님의 기준
• 그 이름-강철의 령장

8 노동신문
• 극악한 친미친일매국역적 리회창의 정체를 발가 본다

10 김일성대학방송강좌
• 정력적인 학습과 탐구를 통하여 위대한 혁명가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가시어

11 한국민족민주전선
• 국민을 우롱하는 이회창
•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해야한다
• 만악의 근원 주한미군을 몰아내자
• 외세공조 배격하고 동족공조 실현하자
• 반드시 계산돼야 할 미국의 죄악

14 투쟁보도
• 서울지역 반미반전 결의대회
• 미군기지로 오염된 땅 ≪파주≫

15 운동강좌
• 통일혁명운동이론의 논제와 토론 (8)

김일성화 전시회

태양절을 뜻 깊게 맞이하고 있는 때 수도 평양의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서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이 개관되고 이곳에서 제4차 **김일성**화전시회가 진행되였다.

절세의 위인들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를 널리 재배번식시켜 온 누리에 만발하게 하려는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열망과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새로 건설된 전시관의 건축면적은 1만2,000여m2이다.

전시관은 국내전시회는 물론 국제적인 화초박람회도 진행할수 있게 꾸려졌다.

이곳에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를 끝없이 흠모하며 따르는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의 지성도 깃들어 있다.

이번에 진행된 제4차 **김일성**화전시회장에는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 청소년학생들이 피워 온 **김일성**화 5,500여상과 **김정일**화 그리고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전시되여 황홀경을 이루었다. 전시회장에는 외국에서와 우리 나라 주재 여러 나라 대사관에서 성의껏 준비하여 보내여 온 **김일성**화들도 전시되여 있었다.

글 강영순

피디에프잡지 ≪조선≫ 5월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여러번 여러 각도에서 보아야 몇배 즐길수 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이전부터 ≪못 보면 한이 되고 1번 보면 다시 보고 싶게 된다.≫고 선전되여 왔다. ≪아리랑≫ 대외초청영접위원회에 의하면 실지로 한번 공연을 본 손님들중에 다시한번 공연을 보겠다고 신청하는 손님들이 다수 있다고 한다.

15만명 수용능력의 거대한 5월1일경기장을 하나의 대극장처럼 만들어 진행되는 ≪아리랑≫공연은 예술과 체조가 배합된 기본무대와 배경대, 구조물이 쉴새없이 그리고 복잡하게 움직이고 변한다. 관람자들에게는 쉴 틈을 주지 않는다. 무대가 바뀔 때도 지루한 감이 없고 1시간 20분동안 련속되는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되여 있다. 관람자들속에서는 하나하나의 변화, 움직임을 더 천천히 해 주었으면 하는 반향, 배경대와 바닥, 공중의 모든것을 보기 위해 눈이 6개 있었으면 하는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교예기교를 부리던 배우가 공중에서 떨어 지는 장면에서는 5층석에서 비명이 오른다. 그 밑에 그물이 깔려 진 사실을 멀리서는 알지 못하기때문이다.

앉는 자리,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작품에 대한 인상도 달리 안겨 온다.

앞에서는 출연자의 표정과 예술적기교를 볼수 있고 우에서는 전경이 바라보이니 출연자들이 무엇을 형상하고 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즉 앞에서는 예술을, 뒤에서는 집단체조를 즐길수 있다. 례컨대 4장의 장면에서 앞에서는 수백명출연자가 만남의 기쁨을 형상하는 표정이 잘 보이고 우에서는 표정은 못보지만 출연자들이 큰 조선반도모양을 그리고 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일단 주석단과 그 둘레에 위치한 해외손님용의 자리에서는 량쪽을 볼수 있는 위치로 되고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모두를 보기에는 역시 바쁘다.

10만명이 출연하는 ≪아리랑≫공연은 여러번 보아야, 여러 각도에서 보아야 심오한 공연의 구성과 내용을 모두 알수 있고 몇배나 즐길수 있다.

조선신보 2002/05/12

천태만상의 황홀경 관람자들을 매혹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반향이 대단하다.

만사람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시작된 공연은 시종 관람자들을 작품의 세계, 신비의 무아경속에 빠져 들게 하고 있다.

력사와 더불어 전해 오면서 민족의 감정과 넋으로 정화된 민요 ≪아리랑≫군을 비롯한 명곡들과 경기장의 거대한 공간을 메우며 천태만상의 황홀경을 펼치는 체조대와 무용대, 배경대, 하늘땅을 엇바꾸며 종횡무진하는 레이자조명, 전광장치물들의 불빛 등이 사람들을 완전히 매혹시키고 있다.

관람자들의 눈길은 경쾌한 취주악에 맞추어 높은 기교의 체조동작과 흥겨운 춤판을 펼친 경기장바닥과 변화무쌍한 배경대, 교예배우들의 공중무대로 연해연방 오르내리고 있다. 이것을 보면 저것을 못 볼것 같고 저것을 보면 이것을 못 볼것 같은 조바심으로 관람자들은 시간의 흐름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공연이 끝나도 불야성을 이룬 경기장 안팎은 자리를 뜨지 못하는 격동된 관람자들로 오래동안 흥성인다.

인류가 도달한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성과들을 집대성하여 시대의 요구와 지향, 사상과 감정을 가장 훌륭히 반영한 작품은 만사람의 경탄을 자아내고 있다.

－꿈인가 생시인가? 인류문화의 극치를 보았다.

－이것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최고의 대걸작이다.

－거대한 이 작품은 그 무엇이나 하면 한다는 조선의 결단과 의지의 반영이다.

이것은 공연을 본 네팔 까뜨만두시 시장과 브루네이 다루쌀람외무성 상임비서, 조선주재 에짚트대사, 일본관광단 단원 아오이 쥬지로를 비롯한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의 반향이다.

조선신보 2002/05/12

일본은 과거청산에 대한 옳은 정치적결단을 내려야 한다

오늘 일본의 과거청산문제는 아시아의 지역문제로서만이 아니라 심각한 국제적문제로 론의되고 있다.

최근 평양에서 진행된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토론회≫에서는 지난세기 구일본이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고 감행한 죄행들이 전면적으로 폭로되였다.

회의에서는 지난 날 일본이 저지른 죄행은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한 엄중한 반인륜적범죄로서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고 하면서 일본의 과거청산문제는 더는 미룰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아는바와 같이 일본의 과거죄행문제는 어제 오늘 론의된것이 아니며 벌써 오래전부터 피해국들에서뿐아니라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와 비정부단체들에서 엄중히 다루어 졌다.

그것은 일본의 과거범죄가 조선인민과 아시아인민들의 인권을 가장 잔악하게 침해, 유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정의와 도의를 심히 파괴하고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한 중대한 반인도주의적 노예범죄, 전쟁범죄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지난세기 피해국들에서 감행한 민간인학살과 략탈, 강제련행과 강제로동, 성노예제 등 모든 반인륜적행위들은 피해자들과 가해자들, 목격자들 그리고 세계의 여러 나라 법률가들과 전문가들에 의하여 그 가해실태와 진상이 이미 의심의 여지없이 확증되였다.

일본이 감행한 모든 범죄행위들은 그 엄중성과 반인륜적성격으로 보아 반드시 사죄되고 청산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과거의 죄행을 어떻게 하나 력사의 흑막속에 덮어 버리고 그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전후 반세기가 지나고 새 세기의 두번째해에 들어 선 지금까지도 과거를 정당화하고 외곡은폐하려 하고 있다.

더우기 강조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일본이 가장 큰 피해국인 우리 공화국과 우리 나라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고 한푼도 보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의 지도적위치를 탐내고 있는 일본이 그 추악한 력사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고 있는것은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으로서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극히 비정상적인 것이다.

대조적으로 도이췰란드는 전쟁책임을 국가명의로 공식사죄하고 피해국들뿐아니라 개인들까지 보상대상으로 정하여 600억딸라이상을 지불하였으며 추가적인 보상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

이딸리아와 전시 도이췰란드에 추종한 나라들은 물론 중립국, 전승국들까지도 전시범죄에 대한 책임소재에 따라 그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밝히고 청산을 하였거나 하고 있다.

유독 일본만이 과거청산을 외면하고 있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전쟁패전과 침략사, 범죄사에 대한 전면부정인 동시에 새 세기의 시대적요구를 무시하는 도전적행위로밖에 달리는 평할수 없다.

오늘 일본의 과거청산문제가 국제적문제로 번져 지고 있는것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인류의 진보적념원의 반영이다.

일본은 과거죄행에 대한 성근한 사죄와 보상을 하는것이 일본자신을 위하여 중요한 선택으로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과거청산에 대한 옳은 정치적결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5월 11일

일제의 범죄적만행을 절규

평양 아시아지역토론회에서 피해생존자들

얼마전 평양에서 진행된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토론회에서 피해생존자들이 일제의 범죄적만행을 피 타게 절규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일제의 과거범죄에 대하여 자기들이 겪은 체험자료에 근거하여 폭로단죄하였다.

일본군성노예피해자 곽금녀는 일본놈들은 자기의 청춘과 육체를 망쳐 놓았을뿐아니라 가정까지도 가질수 없게 한 철천지원쑤이라고 하면서 일제의 죄행을 단죄하는 목소리를 높여 피 맺힌 자기의 원한을 풀어 달라고 호소하였다.

김영숙은 12살 어린나이에 중국 심양에 있는 일본군≪위안소≫에 강제로 끌려 가 녀성으로서의 정조를 무참히 유린당했다고 하면서 자기는 일본의 죄행을 잊지 않고 땅에 묻혀서도 일본을 복수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필리핀녀성인 쥴리아 포라스는 13살나이에 일제에 의해 당한 성노예피해의 후과에 대하여 말하면서 자기를 폐인으로 만든 일본군병사들과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일본을 저주하였다.

인도네시아 녀성 마르디 엠은 연극배우가 되려던 어릴적 소원은 일제에 의해 짓밟히웠다고 하면서 자기 눈으로 일본이 사죄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하는것을 볼 때까지 끝까지 살아 결판을 내고야 말것이라고 말하였다.

강제련행피해자 안성득은 15살나이에 인천시에 있는 통신기계조립공장에 끌려 가 노예로동을 강요 당하였다고 하면서 일본이 열백번 사죄하고 용서를 빈다 해도 조선인민이 당한 그 가슴 아픈 고통과 슬픔을 잊을수 없다고 말하였다.

황종수는 일본 훗가이도의 오다루에서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고된 로동을 강요 당한 사실에 언급하면서 그때 수많은 청장년들이 억울하게 생죽음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지금 이들의 증언자료들은 세계 대중보도수단들의 초점으로 되고 있으며 일제의 과거범죄를 립증하는 산 자료로 되고 있다. 일제가 전 세기에 감행한 범죄행위는 결코 용납할수 없다.

조선중앙통신 5월 11일

세계축구선수권대회를 계기로 한 미군무력 남조선 증파를 비난

미국은 그 무슨 ≪반테로≫의 미명하에 세계축구선수권대회기간에 항공모함 ≪키티호크≫호와 순양함 등을 일본의 요꼬스까기지로부터 남조선해역에 파견하는것과 동시에 오끼나와의 가데나공군기지에 배비되여 있는 공중경계관제기와 화학 및 생물무기전문부대를 남조선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민주조선≫은 미국은 이것이 세계축구선수권대회기간 ≪테로위협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미국이 대회라는 간판을 리용하여 반공화국압살소동을 또 한번 벌려 보려는 음흉한 기도이라고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최근 조선반도에서는 북남관계를 완화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화해와 협력, 평화의 좋은 분위기가 마련되여 가고 있다. 이에 당황망조한 미국은 어떻게 하나 현 사태를 역전시켜 보려고 고안해 낸것이 세계축구선수권대회를 계기로 이른바 ≪감시≫의 미명하에 무력을 남조선에 증파하는것이다.

이것은 북남사이의 대결분위기와 군사적대치상태를 격화시켜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는것은 물론 세계축구선수권대회자체에도 부정적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사실이다.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오직 저들의 목적달성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온갖 전횡과 독단을 일 삼은 미국에 있다.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의 흐름속에서도 세계는 평화와 화해, 협력의 길로 나가고 있다. 미국은 오늘의 시대적흐름을 똑바로 보고 분별 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5월 11일

반통일분자 리회창에 대한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

지금 남조선인민들이 반통일분자 리회창에 대한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는 성명에서 리회창이 외세에 빌부어 갖은 추파를 던지면서 북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느니, ≪대량살상무기문제≫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느니 하는 따위의 망발을 늘어 놓는 리유는 그가 민족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대통령≫이 되고 보자는 속심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까밝혔다.

≪통일련대≫는 성명에서 부쉬의 ≪악의 축≫발언에 맞장구를 치고 상전을 찾아 다니며 매국행위를 일삼는 리회창에 대한 뼈저린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한총련≫은 리회창의 망동은 민족을 팔아 ≪청와대입주권≫을 구걸하는 비렬한 추태라고 규탄하였다.

≪충청총련≫은 전 민족과 청년학생들의 분노가 리회창의 행위를 용납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으며 ≪남총련≫소속 대학생들은 결의대회를 가지고 조국통일의 장애물인 리회창이 정계에서 물러날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5월 11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3)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 주체80(1991)년 5월 5일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노동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국가로부터 능력과 소질에 따라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실업자라는 말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사람을 착취의 대상으로, 잉여가치생산자로 여기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자본가들은 실업을 노동강도를 높이고 노동력을 더 헐값으로 착취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많은 실업자, 반실업자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을 뿐 아니라 직업이 있는 사람들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노동생활이 사람에게 있어서 더욱 보람있는 생활로 되게 하자면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보다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을 마련하여 주어야 합니다. 사회의 생산력이 발전하면 보다 훌륭한 노동조건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어떻게 이용되는가 하는 것은 사회제도의 성격에 많이 의존됩니다. 우리 당은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을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 있습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영도 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마저 해방하는 역사적 과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노동제도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나감으로써 어렵고 힘든 노동을 완전히 없애고 우리 인민의 창조적 노동생활을 더욱 보람차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에게 평등하고 유족한 물질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은 사회주의경제생활의 귀중한 요구입니다. 인민대중의 평등하고 유족한 생활은 노동계급의 당과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적 시책에 의해서만 보장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 시책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누구나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온갖 조건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받으며 고르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국가로부터 무상이나 다름없는 헐값으로 식량을 공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과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온갖 세금제도가 완전히 철폐되어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들, 어린이들의 생활을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바쳐 싸우다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을 비롯하여 공로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그들의 생활을 당과 국가가 따뜻이 돌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 시책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은 사회주의사회의 인민적 시책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그 무슨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사회의 계급적 모순을 가리우고 근로인민대중의 반항을 무마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사 복지정책이 실시된다 하여도 그것은 명목에 지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처지를 개선하지 못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성격으로부터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적분재가 실시되고 가격과 같은 경제적 공간이 이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인민생활을 계통적으로 고르롭게 높이는 원칙에서 생활비와 가격을 정하고 있으며 생활비 차이를 적게두고 그 차이를 더욱 더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품의 값도 대중소비품값은 낮게 정하며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필수품값은 더 낮게 정하고 있습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영도와 크나큰 배려속에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살 걱정을 모르고 고르롭게 잘 살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적 물질생활면모입니다. 우리는 당과 국가가 책임지고 인민들의 물질생활을 보살펴주는 가장 우월한 인민적 시책을 계속 실시할 뿐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그것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인민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물질적 담보는 나라의 생산력발전에 의하여 마련됩니다. 사회주의제도는 생산력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줍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경제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계획경제이며 예속경제가 아니라 자립경제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시장경제나 외국독점자본가들의 배만 불려주는 예속경제는 인민대중의 이익에 근본적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발전속도에서도 계획적으로, 자립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경제를 따를 수 없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이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물질적 번영이 그 무슨 자본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에 의하여 이룩된 것처럼 떠벌이고 있지만 그것은 누구도 속일 수 없는 궤변입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일찍부터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들어섰으나 사회주의나라들은 지난날 경제발전수준이 뒤떨어진 나라들이거나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입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제3세계 나라들에 대한 식민주의적 약탈을 통하여 물질적 번영을 이룩하였지만 사회주의나라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일부 뒤떨어진 나라들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고 그것을 사회주의나라들과 대결시키기 위하여 인위적인 물질적 번영을 조작할 수 있으나 그러한 예속경제는 아무리 발전하여도 근로인민대중에게는 진정한 복리를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오직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자립적인 토대 위에서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경제만이 근로인민대중에게 진정한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굳건히 쌓으며 인민들의 물질적 복리를 향상시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경제협력≫과 ≪원조≫를 미끼로 다른 나라에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강요하고 경제적 침투를 감행하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우리 인민은 당의 영도 밑에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 놓음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경제적 봉쇄나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방침과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함으로써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물질적 복리를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적 교류와 협조를 백방으로 발전시켜 나가지만 제국주의의 경제적 침투책동은 철저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사상문화생활은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분야를 이룹니다. 사람들은 사상문화생활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문화정서적 요구를 실현하며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를 갖추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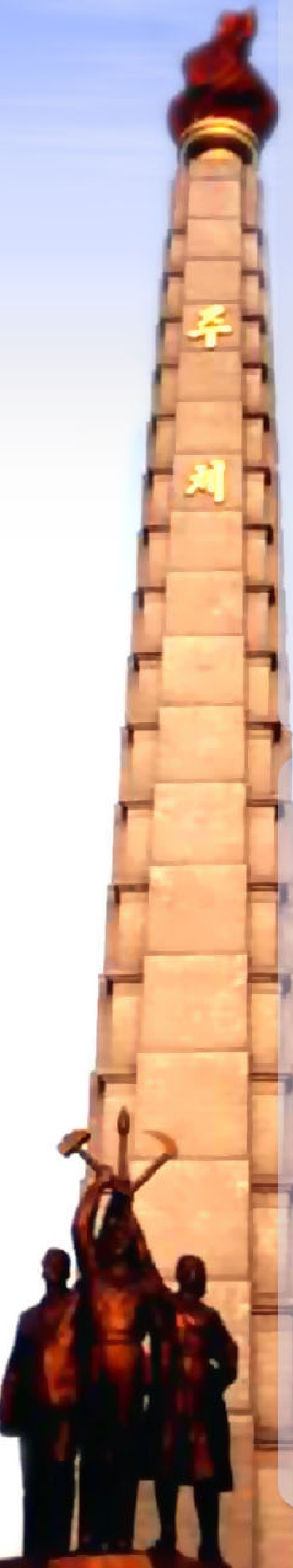
사회주의사회의 사상문화생활의 중요한 특징은 인민대중이 정신문화적 재부의창조자일 뿐 아니라 향유자로 되어 고상한 사상문화생활을 누린다는데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어 있는 사회인 것만큼 인민들의 건전하고 풍부한 사상문화생활조건도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여 주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사상문화생활조건도 당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여주고 있습니다. 당과 국가가 인민들의 사상문화생활조건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주는 제도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에 맞는 가장 우월한 제도이며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입니다.

사상생활은 정치생활과 함께 사람들의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사람의 품격은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정되며 사상의식은 사람의 모든 활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진보와 반동, 혁명과 반혁명 사이의 대결의 기초에는 언제나 사상분야에서의 대결이 놓이게 됩니다.

→

사회주의사회를 떠밀어 나가는 주체는 인민대중이지만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단결되어야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의 사상생활은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생활이며 우리 인민의 사상생활은 노동계급의 완성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상생활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사상생활은 계급적 성격을 띱니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계급적 이해관계와 요구를 반영합니다. 역사상 어느 한 계급도 사회에 대한 자기 사상의 지배를 요구하지 않은 계급이 없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제국주의자들과 독점자본가들은 사회에 썩어빠진 부르죠아반동사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된 계급과 계층으로 분열되어 있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하나의 사상이 완전히 지배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각이한 사상과 사조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자본주의사회의 이러한 현상을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은 사상의 자유라고 떠벌이고 있습니다. 자본의 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진정한 사상의 자유란 있을 수 없습니다. 독점자본가들은 금권을 가지고 출판물, 라디오, 텔레비죤을 비롯한 선전수단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저들의 반동사상을 강요하며 저들에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사상에 대하여서는 공공연한 탄압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이 떠들어대는 사상의 자유인 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 인민들속에 주체사상이 보급되는 것을 총칼로 탄압하면서도 오히려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가 없다고 떠벌이고 있습니다. 원래 사상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주체사상 신봉자대열은 더욱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상을 탄압하는 것은 우월한 사상을 가지지 못하고 반인민적 사상을 강요하는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 인민은 사람중심의 우월한 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의 사활적인 요구로부터 스스로 자신의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는 그 본성으로부터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유일적인 지배를 요구합니다. 낡은 사상을 낳는 사회경제적 기초가 청산되고 계급적 대립이 없어진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하나의 사상이 지배하는 것이 합법칙적입니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에 아직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고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가 감행되는 조건에서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유일적 지배가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사상의식은 사회경제적조건의 영향을 받지만 새로운 사회경제제도가 선다고 하여 사람의 사상의식이 절로 개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사상의식에는 공백이 있을 수 없으며 사람들은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이 아니면 부르죠아사상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특히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악랄하게 벌이고 있는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사상교양사업을 약화시키면 부르죠아자유화바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공연한 침략에 앞서 사상적 침투를 감행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 수법입니다. 사회주의나라에 부르죠아자유화바람을 불어넣어 내부로부터 사상적으로 와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고 외부로부터 온갖 불건전한 사상의 침습을 막기 위해서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여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사상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이며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노동계급의 당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사상혁명을 통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키워야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사상혁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원리교양과 당정책교양, 충실성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 집단주의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상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 속에서는 당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혁명정신이 높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누리는 참다운 사상생활모습이며 혁명적인 사상생활기풍이 온 사회에 넘치고 있는 여기에 우리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사상혁명을 앞세우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사상혁명을 앞세우는 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 이미 세워놓은 사상교양체계와 내용 및 방법을 고수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을 심화발전시킴으로써 우리 인민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데서 그들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적 문화생활제도는 사람들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우월한 제도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창조적 능력과 자질을 소유한 힘있는 존재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전체 인민이 학습하는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인 우리 나라에서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가 성과적으로 실현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 고등교육이 발전되어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훌륭한 민족간부로, 사회주의건설자로 육성되고 있으며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정연하게 서 있어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창조적 재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전당과 온 사회에 정연한 학습체계가 서고 학습조건이 마련되어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정치실무적 자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창조하여 인민들에게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문화가 개화발전되어 우리 나라는 찬란한 문화의 나라, 예술의 나라로 이름떨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속에서 자주적인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공산주의도덕기풍이 확립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은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 혁명적 양심을 가지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이 누리고 있는 건전하고 풍부한 문화생활은 가장 값높고 보람찬 문화생활입니다. 우리는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의 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우리 인민의 건전하고 고상한 문화생활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야 합니다.

3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불패의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사회를 떠밀어 나가는 주체는 인민대중이지만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단결되어야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조직화된 사회인 것만큼 결코 자연발생적으로는 자기의 길을 개척해나갈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옳은 지도사상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의하여 지도되고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적 자각과 조직성이 높아질 때 자기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며 끊임없이 공고발전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인민대중에게 옳은 지도사상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제시하며 그들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사업은 노동계급의 탁월한 수령과 당에 의하여 수행됩니다.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단합시키는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과학적인 이론과 전략전술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는 영도의 중심입니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영도력, 고매한 덕성을 지닌 혁명의 위대한 영도자입니다.

지난날 민족적 수난 속에서 앞길을 찾지 못하고 갖은 풍파를 다 겪어온 우리 인민은 탁월한 영도자의 출현을 애타게 갈망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의 이 염원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심으로 하여 비로소 빛나게 실현되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영도를 받게 됨으로써 오랜 수난의 역사를 끝장내고 혁명의 새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으며 사회주의의 새역사를 승리적으로 개척하여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의 우월한 사회주의가 건설된 것은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과 현명한 영도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내일 계속)

3권 제8장

반일의 기치높이

1. 이광
2. 오의성과의 담판
3. 동녕현성전투
4.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논함
5. 마촌작전
6. 밀림속의 병기창
7. 영생의 꽃

2. 오의성과의 담판 (3)

오의성과의 첫 접촉에서 성과를 거둔 우리는 지체없이 구국군에서 가장 완고한 세력인 채세영부대를 반일연합전선에 끌어넣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진한장도 오사령은 변덕이 없을 것 같으나 채사령이 문제인데 이청천을 쫓아낼 방도가 없겠는가고 걱정하였다. 오사령의 수하에는 1개 여단 정도의 병력밖에 없었지만 채사령네 부대는 숫적으로 그 보다 더 많았다.

나는 이청천에게 담판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이청천은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공산군의 무장을 해제하자고 채세영을 꼬드겼다. 이청천의 말이라면 다 들어주던 채사영도 그 간계만은 반대하였다. 오의성사령이 김대장을 데려다가 오찬까지 하였고 또 김대장이 싸움 잘하는 왕청부대를 데리고 왔는데 잘못 다쳤다가는 큰 변이 난다고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청천이 어떻게나 반공바람을 세게 불어넣었던지 우리는 채세영 문전에 도무지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문제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채사령부대를 오의성과 떼어놓는데 있었다. 우리와의 합작에 응해 나선 오의성을 채세영으로부터 떼어내는 길은 오사령의 기간부대인 사충항여단을 우리의 영향하에 두는데 있었다. 여단장을 잘 설복하면 오의성과의 담판에서 이루어진 초보적 성과도 더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여단의 구성을 알아보니 대체로 하층계급 출신이였다. 사충항 자신도 9살 때부터 지주집에서 돼지몰이를 하다가 먹고살기 위해서 군복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는 길림육군에서 왕덕림의 부하로 복무하다가 9.18사변 후 구국군이 되어 소대장, 중대장, 연대장을 거쳐 한 개 여단의 주인이 되었다. 그는 싸움을 즐기는 전형적인 군인 기질의 소유자였다.

나는 호진민의 소개신을 가지고 그날로 사충항을 만났다.

내가 면회를 요청하자 여단장은 아무런 겉치레도 없이 만사를 제쳐놓고 나를 만나주었다. 그는 왜놈을 잘 치는 김대장이 자기네 부대에 온 것은 경사라고 하면서 나를 친구로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그 사람에게는 반공

오의성

의식도 없었고 군벌기질도 없었다. 아주 소탈하고 점잖은 사람이었다.

사충항은 김대장부대가 일본군대와의 싸움에서 연전연승하는 것은 조선사람의 자랑이자 동만인민의 자랑으로 된다고 하였다. 우리는 그 당시 쟈피거우전투, 양수천자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들을 통하여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비록 신문들이 보도는 하지 않았지만 간도지방에 그 소문이 굉장히 퍼졌다. 놀랍게도 사충항은 그 전투의 전말과 전과를 잘 알고 있었다.

연합하여 동녕현성의 적을 치자는 나의 제의는 사충항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

≪나는 오래 전부터 우리의 측근에 김대장네 유격대와 같은 강력한 우군을 두고 싶었소. 오늘부터 우리는 한형제요. 김대장의 원쑤이자 나의 원쑤고 김대장의 벗이자 나의 벗이오.≫

왕덕림

여단장과 나는 담판의 성공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억세게 포옹하였다. 그 후 우리는 어려운 싸움의 나날에 피와 살을 나누는 형제가 되고 전우가 되었다. 사충항이 독립2사 사장으로 임명된 후부터 전사할 때까지 우리의 우정은 변치 않고 계속되었다.

나자구 담판의 결과로 하여 항일혁명앞에 가로놓였던 가장 큰 암초는 제거된 셈이었다. 우 사령과의 합작이 공동전선을 위한 시발점이었다면 오의성과의 담판은 그 시발점에서 얻은 성과를 전 동만의 범위에로 확대시킨 역사적인 진일보였으며 5.30폭동과 만보산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조중 두 나라 민족의 무의미한 대립과 유혈을 종식시키고 반만항일의 거세찬 흐름을 하나의 대하에로 합류시킨 통쾌한 사변이었다.

오의성, 사충항과의 담판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깨달은 것은 공동전선도 자기의 주체적인 힘이 강해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였다. 만일 우리가 1932년의 남북만 원정과 왕청을 중심으로 하는 1933년의 대소 전투들에서 자체의 군사적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거나 유격대를 승승장구하는 무적의 철군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더라면 오의성은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문 밖으로 쫓아버렸을 것이다. 오사령과의 합작이 그처럼 순조롭게 이루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강했고 정치도덕적 풍모가 구국군보다 우월했기 때문이며 우리의 열렬한 애국심과 국제주의적 우애심,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그를 공감시켰기 때문이었다.

나는 구국군과의 합작을 실현한 그때부터 통일전선을 위한 최상의 수단은 주체적 힘이라는 것과 이 힘을 키우지 않고서는 어떤 우군이나 우방과도 연합하여 투쟁할 수 없다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하기 위한 투쟁을 일상 동안 벌여왔다.

동녕현성을 치자는데 대해서는 오의성과 채세영도 찬성하였다. 우리는 나자구에서 오의성, 사충항, 채세영을 비롯한 구국군지휘관들과의 연합회의를 열고 이 전투와 관련된 구체적인 작전방침을 세운 다음 왕청본부에 또다시 편지를 써보냈다.

오의성과의 담판과 동녕현성전투의 성공으로 하여 동만의 유격부대들과 구국군부대들, 반만항일세력들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오의성과의 합작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통일전선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전반적 항일혁명을 추진시키는데서 계속 틀어쥐고 나가야 할 생명선이며 중심고리라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 후 간도를 떠나 장백 일대로 활동무대를 옮긴 다음에도 나는 오의성과의 합작을 성사시키던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고하였다. 그 당시 동북항일연군에 소속된 오의성은 무송지구에 활동거점을 잡고 우리의 익측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가 가까이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공동투쟁의 나날에 맺어진 옛정이 다시 살아올랐다.

나는 100여 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오의성 부대의 밀영이 자리잡고 있는 서강 동쪽 수림으로 찾아갔다.

그때 오의성은 영채 밖에까지 뛰어나와 나를 얼싸안았다. 우리는 10년이나 20년쯤 서로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죽마고우들처럼 뜨겁게 포옹하였다.

초연에 절은 오사령의 거슬거슬한 수염이 볼에 와닿는 순간 나는 어째서인지 목이 꽉 메는 듯한 격정에 휩싸였다. 군벌기질이 다분하고 자존심이 강한 이 중국사나이와의 상봉이 왜 그다지도 내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는지 알 수 없었다. 싸움속에서 맺어진 정이란 참으로 유별난 것이었다. 나는 오사령이 국적과 연령에 관계없이 나를 친형제와 같이 진심으로 환대해주는데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탄우속에서 맺어진 우정, 세상에 이 우정보다 더 진실하고 더 열렬하고 더 공고한 우정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가장 친근한 사람들끼리의 우정을 전투적 우정이라고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호랑이가죽 위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매 눈 같이 예리한 눈길로 사람들의 인금을 가늠하던 왕년의 도고하던 기상은 오의성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수천명의 부하들을 쥐락펴락하던 녹림호걸이라기보다는 촌늙은이에 가까운 텁텁한 모습이었다. 살도 빠지고 눈 정기도 약해진 것 같았다.

나는 오의성의 밀영에서 이틀을 묵고 돌아왔다. 내가 떠날 때 오사령은 부하 100명을 나에게 넘겨주었다. 내가 사양의 뜻을 표시하자 그는 짐짓 노하는 체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김사령한테 무엇이 없거나 부족하겠소. 그렇지만 큰 싸움을 준비하는 김사령에게 나도 친구로서 무슨 도움을 줘야 할 게 아니오. 그 100명은 내가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 김사령 수하에 가야 합니다. 속담에 다북쑥도 삼밭에 가면 곧아진다고 하지 않았소.≫

그 후 나는 오의성을 다시 만나지 못하였다. 그 해 말에 오사령이 부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쏘련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뒤로는 서로 연계가 끊어져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오의성은 우리가 공동전선의 위업을 개척할 때 잠깐동안 필요했던 일시적인 동반자가 아니라 실천속에서 어깨겯고 포연탄우를 헤쳐온 잊지 못할 전우였다. 오사령이 후반생을 어떻게 보냈고 최후를 어떻게 마쳤는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미해명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어데서도 믿을 만한 소식은 들을 수 없다.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애국애족의 이념에 충실했다면 나는 그것으로도 만족할 뿐이다.

(끝)

일화

장군님의 기준

1964년 6월 말이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을 집무실로 부르시어 풋강냉이(옥수수)철이 다가오는데 평양시민들에게 풋강냉이를 공급해주게 되는가고 물으셨습니다.

일군은 어른들도 그렇지만 특히 어린이들이 풋강냉이를 먹고 싶어하기 때문에 맛이라고 볼 수 있게 조금씩 공급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해당 부문에 알아보았더니 강냉이는 다 국가알곡계획에 든 양곡이여서 어쩔 수 없다고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곡계획때문에 아이들이 그처럼 먹고싶어하는 풋강냉이도 먹이지 못한단말입니까. 계획때문에…≫

장군님께서는 어이가 없으셔 더 말씀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미처 생각을 돌리지 못했다치고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를 제때에 알아보고 풀어주어야 할 어머니당의 당일꾼인 동무들이야 응당 관심을 돌려야 할께 아닙니까. 그런데 동무들은 그런 문제를 제기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그러시면서 아이들의 심정이자 부모들의 심정이고 부모들의 심정이자 인민들의 심정인데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드려서라도 평양시 어린이들에게 풋강냉이를 공급해주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장군님께서는 전화로 그 일군을 찾으셔 어젯밤 위대한 수령님께 풋강냉이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수령님께서는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알곡작물로 심은 것이라도 강냉이를 풋 것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하며 앞으로는 협동농장들에 ≪남새용 풋강냉이≫를 생산하는 지표를 따로 주어 해마다 수도시민들에게 풋강냉이를 공급할데 대해 교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해 여름부터 시민들에게 풋강냉이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그후 어느날 평양시안의 매 주민세대들에 풋강냉이를 공급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일군에게 집의 아이들도 좋아하던가고 물으셨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어쩔줄을 몰라 하더라고 말씀드리자 장군님께서는 만면에 넘쳐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란 말이지.≫

그러시고는 강냉이를 풋 것으로 공급하지 않고 가을에 거두어들였다면 모름지기 국가양곡창고에는 그만한 노적가리가 더 쌓였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러나 풋강냉이를 받아들고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어찌 그들이 먹고싶어하는 것도 안먹이고 쌓아놓은 양곡창고의 노적가리를 쳐다보는 기쁨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장군님께서는 천천히 방안을 거니시며 자못 격동적인 어조로 인민을 위해 일하는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참된 기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1969년 3월 어느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군님께서 평안남도 온천군안의 여러 기관들을 돌아보시다가 공업품상점에 들리셨는데 신발매대에 주민들이 제일 많이 신는 문수의 신발은 없고 큰 신발만 잔뜩 진열해놓아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잠시 매대앞을 묵묵히 거니시다가 그곳 일군들에게 동무들이 일을 되는대로 하고 있다가 위에서 누가 내려온다니까 같은 문수의 신발을 잔뜩 진열해놓았는데 이런 눈치놀음은 무엇때문에 하는가고, 눈치놀음으로 설사 한두명의 일군은 얼려넘긴다고 해도 이곳 인민들의 눈이야 어떻게 속이겠는가고, 인민들은 이런 눈치놀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직물매대에서도 전후시기에 생산하다가 질이 낮아 그무렵에 와서는 생산을 중지한 씨루직퉁그리까지 놓여있었습니다. 비어있는 매대를 채우기 위해 내놓았다는 것이 첫눈에 알렸습니다.

평양에 돌아오신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셔 온천군의 상업부문 일군들이 그렇게 일하는데 대해 정말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자신께서 오늘 그토록 격분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소행이 너무 비양심적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인민을 위한 참된 상업일꾼이라면 마당히 상품을 제때에 받아다가 주민들에게 공급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래도 정 매대에 내놓을 상품이 없으면 상품생산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도와라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신 그분께서는 정원을 내다보시다가 우리 인민들이 이런 상업일꾼들을 두고 뭐라고 하겠는가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말은 생각의 나타냄이요 습관적인 말은 집념의 표현입니다.

장군님께서 ≪인민들이 좋아하오?≫, ≪인민들이 뭐라고 하겠소.≫ 이 두가지 말씀을 습관적으로 쓰시는 것은 그분께서 새로운 노선과 정책을 세우고 사업을 포치하실 때 그것을 민중이 좋아하겠는가, 그것이 민중의 이익과 요구에 맞겠는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철저한 기준으로 내세우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송시

그 이름-강철의 령장

밝아오는 새날의 노을빛에
풀잎의 이슬이 반짝이는 초소의 아침
간밤에도 조국의 안녕을 지켰다고
우러러 경건히 보고를 드리며
내 마음속으로 조용히 부르는 그 이름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천리방선 봉우리 봉우리들이
머리쳐들며 받아외우는듯
가슴에서 가슴으로
초소에서 초소에로
하늘땅 가득 메아리되여 울리나니

아 우리 병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
불러 다함이 없고
불러 용맹이 솟음치는 그 이름은
홀로 지새우는 잠복의 밤에도 함께 있어
마음 언제나 든든하여라

천하를 떨치는 그 음성으로
우리 혁명무력에 영광을 주신분
우리 인민군대를 주체의 당군
정의의 강군으로 키우시고 통솔하시여
언제나 이기시는 백전백승의 사령관

그 이름은
백두설령을 넘어 장장 60여년
승리와 영광이 아로새겨진
신성한 군기와 함께 나아가고
병사들의 엄숙한 군인선서에서 울린다

그 이름은
압살의 검은구름이 사납게 몰려와도
이 나라 푸른 하늘 한쪼각도
흐릴수 없음을 선언하며
오각별 우리의 매들이
강철의 날개를 펼치고 리륙하는 활주로에서 울리고
파도를 헤가르며 질주하는
함선의 갑판우에서 울리나니

인사를 받으시라
그 한손에
복잡다난한 세계를 거머쥐시고
꽃피는 봄
인민의 행복을 지켜가시는
력사의 수호자 절세의 장군

그이 아니시면 그 누가
우리 병사 한사람한사람을
일당백의 용사로 키우고
우리 혁명무력의 사단과 군단들을
일심단결된 무적의 함대로 꾸리여
사회주의수호의 성전에 내세울수 있으랴

인민을 사랑하시는 그만치
인민을 해치려는 원쑤들에게는
번개같이 단호하시고
폭풍같이 무자비하신
천하제일명장 그이앞에
제국주의무리가 전률하여라
그렇다
경애하는 그이의 이름은
백두의 호걸, 혁명의 뢰성,
희세의 영웅, 승리의 상징

우리의 운명과 조국의 미래
사회주의의 생사존망이 달려있는 이름
이 땅을 질식시키려 원쑤들이 미친듯 날뛰여도
천둥우뢰처럼 그 이름이 울리는곳에선
래일도 아침은 예대로 밝고
꽃피는 봄은 찾아와
내 조국엔 승리의 노래 더 높이 울리리니

인사를 받으시라
경례를 받으시라
또 하루 조국의 안녕을 지켜낸
이 아침
사회주의의 영원한 안전을 담보하는
조선혁명무력의 장엄한 사열을 받으시라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이시여!
강철의 령장 **김정일**원수이시여!

극악한 친미친일매국역적 리회창의 정체를 발가 본다

노동신문 주체91, 5월 11일

지금 남조선에서 올해 말에 있게 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리회창이 ≪후보≫로 나서서 집권야망에 들떠 돌아 치고 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아랑곳없이 오직 집권야망에만 피눈이 되여 날뛰는 리회창역도, 그는 과연 어떤 자이며 어떤 죄악의 행적을 걸어 왔는가.역적의 추악한 정체를 발가 본다.

타고 난 친일기질

역적의 가문에서 역적이 나오기 마련이다.

리회창의 애비 리홍규는 극악한 민족반역자이다. 그는 1929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한후 줄곧 일제검찰계에 들이박혀 나라와 민족을 반역하는 역적질을 수없이 감행하였다. 당시 일본인도 오르기 힘든 검찰서기가 된 리홍규는 해주지방법원 검사국 서기라는 직권을 악용하여 농민들로부터 집짐승을 강제로 빼앗아 일본상전에게 섬겨 바쳤다. 그리고 일제가 ≪정신대≫명목으로 우리 조선녀성들을 ≪종군위안부≫로 끌어 갈 때에는 처녀들뿐만아니라 출가한 녀성들까지 명단에 넣어 ≪황군≫의 성노리개로 섬겨 바쳤다. 리홍규는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애국적독립운동가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학살하였다.

그가 얼마나 악착했던지 일본인검사들도 낯을 붉히였다고 한다.

이렇게 일본에 충실한 ≪공로≫로 하여 그는 그후 일제의 더 큰 신임을 받고 광주지방법원 검사국의 사상담당 검사밑에 있으면서 독립운동과 계몽활동을 거세말살하기 위해 피눈이 되였다. 친일역적 리홍규는 일제가 패망하고 남조선에 미군이 기여 들자 재빨리 상전을 바꾸어 친미주구로 둔갑해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8.15광복후 미군정청 전남검찰청 검사로 된 리홍규는 또다시 민주애국인사들을 검거투옥학살하는데 앞장 섰다.

알려 진데 의하면 전남, 충북, 서울 등지에서 일어 난 크고작은 사건치고 그가 관여하지 않은 사건이 없다. 그가 얼마나 사람잡이에 명성을 떨쳤던지 동료검사들조차 그의 파쑈적기질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한다.

리회창은 바로 이런 친일친미역적의 가문에서 태여나 애비의 역적기질을 고스란히 넘겨 받았다.

언제인가 리회창은 자기의 애비에 대해 회고하면서 ≪나의 아버지는 일본을 여간만 숭상하지 않았다. 내가 어릴적부터 지금의 나이에 이르도록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것은 아버지이다. ≫라고 말했다.

그 애비에 그 아들이라고 애비로부터 친일사대교육을 받으며 자란 리회창역도는 소학교시절부터 우리 말과 글은 잘 몰라도 일본말은 류창하게 번져 담임교사와 학생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는 옷차림새로부터 일상생활필수품에 이르기까지 일본제만 쓰면서 ≪내지인≫(일본인)흉내내기를 좋아하던 나머지 일본인으로 태여나지 못한것을 몹시 후회하군 하였다.

아침마다 애비와 함께 일찍 일어 나 동쪽

하늘을 향해 ≪궁성요배≫를 하는것을 제도화, 습성화한것도 리회창역도이고 ≪기모노≫(일본옷)를 입고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는 장면을 사진 찍어 둔것을 자랑한것도 다름 아닌 리회창이다.

친일사대사상이 골수에까지 꽉 들어 찬 리회창은 얼마전 일본행각시에 친일역적으로서의 기질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는 일본상전들앞에서 삽살개처럼 꼬리를 저으며 일제때 애비가 혈서로 충성을 맹약한 것처럼 온갖 역적질을 다하였다.

리회창은 주제넘게도 그 누구의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해 떠들면서 그 ≪해소가 남북협력의 핵심≫이라느니, ≪북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과 미싸일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응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희떠운 소리를 줴쳤다. 지어 우리의 정치체제를 악에 차서 헐뜯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특등친미사대매국노

8.15광복후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하자 재빨리 친일주구로부터 친미주구로 둔갑한 애비 리홍규를 따라 리회창은 미국을 신주 모시듯 하며 아부아첨하는 주구로서의 기질을 익히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누구든지 외세를 등에 업고 외세와 공조하면서 동족을 적대시하고 반북대결정책을 추구한다면 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을 받게 될것이며 력사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것입니다. ≫

리회창은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벌써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과 하바드대학을 수료하면서 미국식자유민주주의의 광신자가 되였다. 이때부터 그는 미국의 비호 없이는 정계에도 진출할수 없고 더우기는 권력야욕도 채울수 없다고 단정하고 미국의 개질을 하는데 발 벗고 나섰다.

리회창의 친미사대적본성은 미국에서 보수적인 부쉬행정부가 출현하자 마치 구세주나 만난듯이 더욱 로골화, 표면화되였다.

리회창이 얼마나 악독한 친미사대매국노인가 하는것은 얼마전 있은 미국행각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역도는 상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우리를 걸고 들면서 ≪북은 변한것이 없다≫느니, ≪북의 핵개발에 대비≫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피대를 돋구었다. 지어 자기가 집권하면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북의 병력을 후퇴배치≫시키고 ≪재래식무기감축≫과 ≪대량살상무기개발중단≫을 요구하겠다는 주제넘은 소리까지 줴쳐 댔다.

부쉬행정부가 ≪아≫하면 ≪아≫하고 회초리를 들라면 한수를 더 떠서 몽둥이를 드는것이 바로 리회창역도이다.

부쉬정부가 북에 대한 ≪전략적상호주의≫, ≪투명성≫, ≪검증≫을 떠들면 리회창역도는 ≪일방적양보불가론≫, ≪철저한 검증≫, ≪거울 같은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피를 물고 줴쳐 댔다. 이것은 리회창이야말로 자기의 더러운 집권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민족반역행위도 서슴지 않는 천하에 둘도 없는 매국역적이라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내외에서 ≪한나라당≫을 두고 ≪앵무새당≫, ≪미국의 졸개당≫이라고 하며 리회창을 두고 ≪미국의 괴뢰≫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것이 결코 우연치 않다. 더우기 스쳐 지날수 없는것은 리회창이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 무한정 못 박아두려고 미쳐 날뛰고 있는것이다. 그는 2001년 8월 그 무슨 시국강연회라는데서 ≪미군철수문제가 안보를 해칠수 있다≫면서 미군은 통일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고 줴쳤는가 하면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반미투쟁을 ≪무분별한 행동≫으로 모독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백년숙적일뿐아니라 온갖 불행과 재난의 화근인 침략군 철수를 한사코 반대하는 리회창역도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특등친미사대매국노이다.

리회창역도와 같은 극악한 친미주구를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할수 없다.

조국통일의 극악한 원쑤

6.15북남공동선언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 단합을 이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새 세기 통일의 리정표이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관계없이 공동선언을 지지환영하고 그 리행에 열성을 다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리회창역도는 처음부터 공동선언을 반대해 나섰다. 리회창은 공동선언이 발표되자마자 기자회견이라는것을 벌려 놓고 ≪북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느니, ≪얻을것이 없다≫느니, ≪결실이 있으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느니 하고 악의에 찬 험담을 늘어 놓았다. 그러나 개는 짖어도 행렬은 나간다고 리회창패거리들이 공동선언을 흠집내보려고 제아무리 악을 썼어도 소용이 없었다.

6.15공동선언정신에 따라 북남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 나게 되자 리회창의

→

발악은 극도에 이르렀다. 그는 북남사이의 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해 지자 ≪북의 체제강화에 도움을 준다≫느니, ≪일방적인 퍼주기식≫이라느니, ≪남은 아무것도 얻은것이 없다≫느니 하면서 북남사이의 신뢰와 화합의 마당에 재를 뿌렸으며 북과 남을 잇는 경의선복구공사기공식때에는 ≪전시성행사≫니, ≪남침통로개설≫이니 뭐니 하고 악담질을 했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전략적상호주의≫, ≪투명성≫, ≪검증≫을 념불처럼 외워 대면서 공동선언의 리행을 한사코 반대하였다. 지어는 2001년 6.15공동선언발표 1돐을 계기로 진행된 어느 한 회의에서는 공동선언과 관련해 ≪밀약설≫, ≪사전합의설≫까지 날조하여 그것을 악랄하게 헐뜯었다.

평양에서 진행된 2001년민족통일대축전과 관련해 이른바 ≪돌출사건≫을 조작하고 공동선언을 무력화시키며 북남관계를 대결로 되돌려 세우기 위해 히스테리소동을 벌린것도 리회창패거리들이다. 최근 ≪한나라당≫안의 ≪혁신위원회≫라는데서 이른바 ≪대북기본로선≫이라는 범죄적문건을 만들어 내여 북남사이의 대결을 고취하고 동족을 해치려 하고 있는것도 폭로되였다.

리회창역도는 어느 한 군부대를 찾아 가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주적≫으로 몰아 대며 북남대결과 전쟁열을 고취하였다.

이 모든것은 리회창역도야말로 북남관계개선이나 통일에 대한 의지가 꼬물만큼도 없는 극악한 반민족, 반통일분자라는것을 여지없이 실증해 주고 있다.

피를 즐기는 파쑈살인광

리회창은 ≪법관≫감투를 쓰고 수많은 애국적인사들과 무고한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학살한 극악한 살인마이다.

1957년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공군본부법무관≫을 거쳐 4.19인민봉기직전인 1960년 3월 서울 ≪지방법원 인천지원판사≫노릇을 하던 때로부터 리회창역도의 파쑈적기질은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그는 ≪국가전복음모≫니, 무슨 ≪간첩단사건≫이니 하는 각종 사건들을 날조해 수많은 민주애국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을 처형학살하였다.

리회창은 1960년대 초에 벌써 ≪민족일보사건≫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죄를 씌워 중형을 선고했고 조용수사장에게는 사형판결을 내렸다.

1982년 3월 18일에 있은 부산 ≪미국문화원≫방화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고 김현장, 문부식, 김은숙 등 관련자 15명에게 사형을 비롯한 극형을 선고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리회창은 광주인민봉기참가자들을 처형학살하는데서도 주모자적역할을 하였다. 역도는 광주인민봉기자들을 재판처형하는데서 군부독재자들도 무색케 할 정도로 악명을 떨치였다.

리회창역도는 ≪피의 권력탈취≫로 알려진 전두환의 군사쿠데타를 ≪헌정사상 최초의 평화적정권교체≫로, 독재자 로태우를 ≪민주화의 토대를 닦은 대통령≫으로 추켜 올리고 자기는 ≪5, 6공≫시기에 ≪대법관≫으로 일한것을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떠벌임으로써 파쑈폭군, 극우보수분자로서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냈다.

참으로 리회창의 온몸뚱아리에는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하는 애국적인민들의 피로 물들여 져 있다.

부정부패의 능수

리회창역도는 부정부패와 협잡의 능수이다.

정치인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도덕마저 없는 인간추물이다.

50년전 리회창이 10대나이에 경기고등학교에 다니던 때부터 주색에 미쳐 돌아가면서 수많은 녀학생들을 희롱하던 나머지 그들의 일생을 망치게 한 일이 많다고 한다. 제 버릇 개 못준다고 그후 ≪공군본부법무관≫노릇을 할 때에도 부화방탕한 생활로 세월을 보내였다.

리회창역도의 ≪창자론≫, ≪씨말리기론≫, ≪도끼론≫은 그의 무지한 례의도덕관을 집중적으로 보여 주는 실례라 하겠다.

1997년 ≪대통령선거≫때 있은 일이다. 당시 ≪한나라당≫후보로 나선 리회창은 기자들에게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는 기사를 쓴다고 하여 ≪창자를 뽑아 버리겠다≫, ≪씨를 말려 버리겠다≫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상소리로 욕설을 마구 퍼부어 내외언론인들을 격분케 했다. ≪죽여 버린다≫, ≪토막쳐 버리겠다≫, ≪도끼로 찍어 버리겠다≫, 이런 무지막지하고 독살스러운 말을 하지 않으면 리회창이 아니라고 할 정도라고 하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리회창은 부정부패의 왕초이기도 하다.

≪원칙주의자≫, ≪법치주의자≫로 자처하는 그의 안속을 들춰 보면 지저분하고 썩을대로 썩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안기부자금횡령≫문제만 보아도 그렇다. 이 사건은 1996년 ≪국회의원선거≫당시 ≪안기부≫가 ≪정부예산≫을 전용하는 방법으로 비밀자금 900억원을 조성해 그중 500억원을 ≪신한국당선거자금≫으로 쓴 대형부정사건이다.

당시 리회창은 불법전용한 ≪안기부자금≫중 183억원을 같은 패당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도 거액의 부정자금을 챙겼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때마다 기업가들로부터 엄청난 자금을 부정적으로 챙기였을뿐아니라 부정부패이야기가 나오면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당을 죽이기 위한 모략이다≫, ≪보복은 보복, 피는 피를 부른다≫고 하면서 도전해 나섰다.

역도의 부정부패행위는 극히 교활한것이였다. 그는 일반사건관련자들을 다루면서도 그들을 강박하여 거액의 검은돈을 받아먹었는가 하면 ≪리회창후원회≫요, ≪혁신위원회≫요 하는것을 조작하고 이를 통해 뭉치돈을 빨아 들였다.

그는 이렇게 부정협잡으로 그러모은 돈가운데서 2억원을 들여 친일역적인 자기 애비의 집을 원상대로 지었으며 최근에 또다시 주택부정사건을 일으켰다.

병무청에 엄청난 액수의 뢰물을 주고 두 자식들을 군에 안내 보내고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에게 굳이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만을 위한 원칙≫, ≪대통령자리를 겨냥한 원칙≫만이 있을뿐이다.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은 ≪원칙, 원칙하는 사람이 더 무섭다. 얌전한체하는 사람이 뒤로 호박씨를 깐다. 리회창이 걸핏하면 법치주의자연 하지만 그 사람의 뒤가 더 지저분하다. 이제 내 입만 터지면 리회창의 부정비리는 쫄딱 발가진다.≫고 하였다. 사실들은 리회창역도야말로 자기가 떠드는것처럼 청렴결백한 ≪대쪽≫이 아니라 들추면 들출수록 부정부패의 악취만 풍기는 썩은 대쪽이라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반민주, 반민족, 반통일분자, 특등친미친일사대매국노, 도덕도 량심도 모르고 오직 제 하나의 부귀영화와 집권욕에만 미쳐 나라와 민족을 반역하고 통일을 반대하는 역적 리회창을 그대로 두면 우리 민족에게 화밖에 차례질것이 없다. 6.15북남공동선언이 날아 나고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 교류의 길이 가로 막히게 될것이며 조선반도는 외세의 핵전쟁마당으로 화하게 될것이다.

독사는 제때에 때려 잡아 없애야 한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리회창역도에게 어떤 환상이나 기대도 가지지 말아야 하며 그를 정계에서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할것이다. (끝)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역사 강좌 제15회
학사 김창호선생 - 주체91, 5월 11일

정력적인 학습과 탐구를 통하여 위대한 혁명가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가시어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정력적인 학습과 탐구를 통하여 위대한 혁명가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가신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혁명가라고 할 때에는 노동계급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기 위해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바쳐 싸우는 투사를 말합니다. 혁명가로서 대중의 앞장에 서서 대중을 이끌어 나가자면 정치실무적인 능력과 수완이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함께 높은 실력이 안받침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실력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력적인 학습과 탐구과정을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라고 하며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첫 공정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학습과 탐구를 대단히 정력적으로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인민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 학습과 탐구를 정력적으로 하셔서 위대한 혁명가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가셨습니다. 사람의 일생에서 학습은 중요하지만 인민학교와 중학교 시기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 시기가 세계관 형성의 기초를 쌓는 시기라는 사정과 관련됩니다.

그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학습과 탐구를 어떻게 하셨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정일**동지는 머리가 비상하다고 하시면서

> **≪그는 학창시절부터 탐구심이 남달리 강하였습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깊이 체득하는데 학습과 탐구의 중심을 두시고 여기에 온 심혈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노작학습을 첫 자리에 놓으시고 정력적으로 학습하셨습니다.

그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노작학습을 왜 첫자리에 놓으시고 학습과 탐구를 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에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 우리 당의 정책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방향과 방도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노작을 많이 알면 알수록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더욱 깊이 체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학습과 탐구의 중심을 수령님의 노작학습에 두시고 여기에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신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리실 때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방송연설이 나오면 정중한 자세로 들으셨습니다. 또, 신문에 수령님의 연설이 실리면 두세번 반복해서 읽고 또 읽군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역사적으로 하신 논문들과 연설들, 강의록을 비롯해서 수령님의 노작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학습하셨습니다. 그이의 책상 위에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노작들이 쌓여 있었고 노작의 매 페이지나 글줄 밑에는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노작학습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수령님의 노작을 자자구구 따져가면서 학습하셨습니다. 뿐만아니라 그이께서는 학교 소년단 조직과 학생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의 노작학습을 첫자리에 놓고 진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실례를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체42(1953)년 1월말 어느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분단열성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7(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 대한 연구발표 모임을 가질 것을 계획에 넣는 것이 어떻겠는가고 물으셨습니다. 그이의 이 말씀을 듣고 분단열성자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노작을 학습해 본적도 없고 또 노작연구발표 모임을 어떻게 하는지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학생들이 그이께 그런 연구모임이야 어른들이 하는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른들이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이 무엇인가고 하시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수령님의 연설에 대한 연구발표 모임을 할 수 있으며 수령님의 연설은 어른들만 학습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이의 이 말씀은 학생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의 노작부터 학습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로부터 얼마후인 2월초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도 밑에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에 대한 연구 발표 모임이 진행되였고 이 노작연구발표 모임을 계기로 해서 학생들 속에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노작학습 기풍이 서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노작학습 뿐만 아니라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들을 해설한 도서들은 물론 당보를 비롯한 여러 신문들과 잡지들도 열심히 탐독하셨습니다. 이 과정에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진리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자연과 사회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장군님께서 세계 진보적 인류로부터 천재중의 천재로 칭송 받으시는 것도 또, 남조선 인민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의 으뜸가는 문관이고 손꼽히는 무관이라고

일반적으로 혁명가라고 할 때에는 노동계급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기 위해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바쳐 싸우는 투사를 말합니다. 혁명가로서 대중의 앞장에 서서 대중을 이끌어 나가자면 정치실무적인 능력과 수완이 있어야 합니다.

칭송하면서 우러러 보는 것도 다 그이께서 어려서부터 남다른 탐구심을 가지고 인류역사가 창조한 모든 분야의 지식을 다방면적으로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학과목에 정통하셨을 뿐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지식을 풍부히 체득해 나가셨습니다. 그러자니 그이께 있어서 시간은 매우 귀중했습니다. 그이께서는 학습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책을 늘 가지고 다니시면서 읽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학습의 많은 시간을 바치시는데만 그치지 않으시고 짧은 시간에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데 정열을 다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일단 책을 쥐시면 아무리 부피두터운 책이라도 마지막 장을 넘기실 때까지 그리고 주위환경에 구애되지 않고 온 정신을 집중해서 학습하셨습니다. 당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서가를 돌아본 사람들은 서가의 방대함과 내용의 다양함에 놀라와했고 또, 매 책의 갈피마다에 탐구와 노력의 흔적이 깃들어 있는데 대해서 경탄했습니다.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쟁의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학습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더 정력적으로 하셨습니다. 전쟁시기로 말하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학교에 다니시던 시기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학교 시기 얼마나 정력적으로 학습하셨는가 하는 것은 그이께서 이 시기 두개 학년 과정을 마치신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인민학교 과정은 5년으로 되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2학년과 3학년 과정을 뛰어넘어 주체41(1952)년 11월에 인민학교 4학년에 편입되어 공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학습을 매우 다방면적으로 하셨습니다. 그이의 서가에는 ≪역사적 유물론≫, ≪자본론≫, ≪중공업발전 및 국가전기화≫, ≪식민주의론≫, ≪대중속에서 당사업≫, ≪축산편람≫, ≪광업편람≫, ≪경금속야금≫, ≪도자기 만드는 법≫, ≪금속재료≫, ≪문학론≫, ≪경음악 독집≫, ≪화단 조성과 꽃재배≫, ≪닭기르기≫를 비롯해서 다종다양한 많은 책들이 꽉 차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책들은 초급중학교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든 책입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초급중학교 시기에 벌써 학교에서 배워주는 학과목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해서 모든 분야의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정력적인 탐구활동을 벌리신 것입니다.

그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리신 그때부터 왜 학교에서 배워주는 학과목만이 아닌 여러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애쓰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더 잘 모시고 받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리셨을 때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이께 늘 어떻게 하면 위대한 수령님을 더 잘 모시고 수령님의 말씀을 더 잘 받들어 나가겠는가 오직 이 한가지 생각만을 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어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슴속에 신념으로 자리잡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모든 사색과 활동, 학습과 탐구를 그 자체에 두지 않으시고 어버이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풀어드리는 것으로 수령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모시고 받들어 나가겠는가 하는데 두신 것입니다.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날 한 학생이 경애하는 그이께 서가를 돌아보다가 ≪닭기르기≫라는 책을 보고 그이께 이런 기술서적 같은 책이야 전문가도 아닌데 읽어서 무엇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이시려고 닭기르는 방법을 연구하시는데 그래서 자신께서도 그 책을 읽는다고 하셨습니다.

주체사상탑 부주제군상 ≪배움의 나라≫

그이의 이 말씀을 듣고 그 학생은 그이의 정력적인 학습과 탐구의 비결, 놀라운 독서력과 방대한 양의 독서량의 비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였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학습과 탐구를 통해서 위대한 혁명가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가셨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실에 대한 체험과 혁명실천을 통하여 위대한 혁명가로서의 품격을 갖추어 나가신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민을 기만우롱하는 망발을 늘어놓은 이회창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이회창역도는 10일 오후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전당대회에서 있은 대통령후보수락연설을 통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하겠다느니 북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늘리겠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댔습니다.

이것은 반민족반통일분자이며 친미친일사대매국노인 이회창이 정계에서 즉시 퇴진하라는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에 대한 악랄한 기만우롱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일각에서는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남북관계가 대결의 원점으로 돌아가 통일이 요원해지고 권력형 부정부패가 더욱 횡행해 질 것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회창을 정계에서 퇴진시켜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주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회창은 부정부패의 왕초입니다. 이회창이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가 착복한 검은 돈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회창이 최규선으로부터 20만달러를 받아 착복하고 10억원을 쓰고 직접 구입한 가회동주택은 이를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이회창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북에 인도적 지원을 늘리겠다고 떠든 것 역시 국민기만행위입니다.

국민들은 이회창이 통일******아예 말라며 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회창역도는 6.15공동선언이 발표된후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교류가 활성화될 때 북에 너무 많이 퍼준다느니 뭐니 하면서 앞장에 서서 시비질을 했습니다.

어제는 북에 너무 많이 퍼준다느니 뭐니 하면서 시비질을 하던 자가 대통령이 되면 북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늘리겠다고 떠들어댔으니 이회창의 말을 믿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한 이회창의 망발은 한마디로 집권욕에 환장한 자의 국민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회창이 청와대에 입주해보려고 국민을 기만우롱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신병자의 잠꼬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속담에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 있듯이 이회창이 아무리 발악해도 국민들이 청와대 입주권을 주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이회창이 역사와 민족앞에 지은 죄악이 너무나도 크고 그의 슬로건이 반민족반통일적이기 때문에 그를 민족의 족보에서 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회창은 분노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대통령이 되보려는 개꿈마저 버리고 대통령후보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분열이 아니라 통일을 바라는 각계 애국 민중은 이회창의 감언이설에 기분 들뜨지말고 한나라당해체와 이회창을 반대하는 투쟁을 광범위하게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11일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해야한다

단결은 곧 통일이고 통일은 곧 단결이라 하겠는데요.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통일의 길로 힘차게 매진하고 있는 우리 민중에게 있어서 단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하겠죠. 그래서 ≪오늘의 연단≫ 첫 순서로 단결에 관해 해설해드리도록 하죠. 임기수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온 겨레의 통일기운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 있으며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지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확고합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입니다.

이 시간에는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해야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천만 온 겨레는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감정은 의심할바없이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만 유달리 우리 민족이 자기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며 민족의 넋을 귀중히 여기는 민족성이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의 애국애족의 정신과 고유한 민족적 기질은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튼튼한 사상정신적 기초로 됩니다. 특히 민족분열의 온갖 불행과 고통을 겪을대로 다 겪어온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최대의 민족적 요구로 나서고 있으며 조국통일의 기치는 민족공동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성에 바탕하여 민공공동의 위업을 위해 온 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해야 하는 겁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갈라져 살아온 남과 북 사이에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차이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써의 민족적 공통성이 훨씬 더욱 큽니다.

민족의 각이한 계층의 요구와 이해관계도 서로 다르지만 오늘 우리 민족앞에 1차적으로 나서는 민족적 과업은 조국통일이며 모든 것들을 통일위업에 복종시켜야 하는 겁니다.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절대화하고 각자의 개별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민족적 공통성과 민족단결의 이익을 외면한다면 민족의 대단결도 조국통일도 이룩할 수 없습니다.

범민족대회참가자들이 백두산에서 행진을 하고 있다

애국애족의 사상감정은 사람들의 정치이념이나 신앙을 뛰어넘는 사상감정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대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다름아닌 애국애족의 뜨거운 사상감정이 강화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자기 겨레와 조국에 대한 사랑을 지니지 않고서는 조국통일운동의 거세찬 흐름에 합류할 수 없습니다. 가혹한 탄압을 당하고 감옥으로 끌려가면서도 공동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며 통일을 부르짖는 이 땅의 각계 민중들은 이념과 신앙을 뛰어넘어 조국통일위업에 자기의 한몸을 다 바칠 애국애족의 숭고한 사상감정의 소유자들입니다.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은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계급계층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해야 합니다.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 도시소자산계급, 민족자본가와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종교인, 군인할 것 없이 민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조국통일을 위해 단결하여 투쟁해야 하며 조국통일위업에 적극 이바지해야 합니다.

이 땅의 집권상층이나 여당과 야당인사들, 대자본가, 군장성들도 민족공동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단합할 수 있습니다.

이북에서 펴나가는 광폭정치는 만사람을 한품에 안아주는 숭고한 인간애의 정치이며 민족의 모든 계급계층을 나라와 민족의 공동위업을 위하여 굳게 묶어세우는 가장 폭넓은 애국애족의 정치입니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우리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김정일**장군님은 비록 지난날 민족앞에 죄지은 사람이라도 오늘에 와서 과거와 결별하고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려는 사람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는 우리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십니다.

개인은 민족의 운명속에 생존하며 자신의 빛나는 삶도 민족의 운명과 함께 있는 겁니다. 통일된 조국은 우리 7천만 겨레의 행복한 삶과 우리 민족의 휘황한 미래를 기약해주는 요람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진정으로 민족구성원의 한사람이라면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애족적 운동에 한결같이 나서야 하는 겁니다.

조국통일운동사는 통일만이 민족의 살길임을 자각하고 탄압을 박차고 떨쳐일어선 이 땅의 각계층 민중들의 투쟁을 애국애족적 운동으로 뜨겁게 평가할 것이며 애국애족의 길을 가로막는 자들은 역적으로 낙인하고 역사의 심판대위에 내세울 겁니다.

7천만 온 겨레는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민족의 소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11일

만악의 근원 주한미군을 몰아내자

우리 겨레와 민중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고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걸림돌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이 경향 각지에서 줄기차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에 관해서 이철씨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각지에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층 민중은 미군기지전면반환과 주한미군철수투쟁을 줄기차게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인천과 의정부 등 전국 각지의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 민중이 시위와 집회를 비롯한 각종 형태의 반미투쟁을 벌이면서 미군기지를 전면반환할 것과 주한미군철수를 강력히 요구해 나선 것은 이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시대의 절박한 요청이고 우리 민족민중의 일치한 요구입니다.

미군의 ≪한국≫강점 50여년에 걸친 치욕의 역사는 주한미군이야말로 우리 민중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고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평화와 통일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에게 민족분열의 비극을 강요하고 민족의 자주권확립과 통일적 발전의 길을 가로막은 것도 미국이고 반세기이상이나 우리 민중을 불행과 고통, 재난에 몸부림치게 한 장본인도 다름아닌 주한미군입니다.

미군의 발길이 가닿는 곳마다에서 살인과 폭행, 강도와 약탈, 강간 등의 범죄가 그칠새 없었으며 그로인해 우리 민족의 존엄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생명과 재산이 엄중히 침해당했습니다.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 따라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침략과 전쟁의 돌격대로써 우리 민중을 항시적인 전쟁위험속에 몰아넣었으며 오늘은 우리 민족민중에게 핵재난까지 덮씌우려고 북침전쟁, 핵전쟁연습소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부시미행정부의 ≪악의 축≫제창과 ≪핵태세 검토보고서≫에 작성된 핵공격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력을 최신형 무기로 대폭 증강하고 대규모적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롯해서 북침전쟁연습을 매일과 같이 벌이고 있는 것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에 대한 핵선제공격까지 운운하며 주한미군을 비롯한 해외주둔 미군까지 끌어들여 전면적인 북침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이 시간문제로 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줍니다. 미제의 무분별한 반북압살책동, 핵전쟁책동으로 우리 민족, 민중의 운명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와 세계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랄 수 없고 우리 민족의 분열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이룩하는가 못하는가 민족의 운명을 지켜내고 자주권을 확립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각계층 민중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이 갖는 중요성과 그 의의를 똑바로 인식하고 주한미군철수운동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더욱이 최근 부시정권이 미군기지이전이니 통합이니 하면서 미군기지전면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미군의 영구주둔을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는 것을 꿰뚫어보고 미군기지전면반환과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투쟁을 다같이 힘있게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땅의 모든 미군기지를 되찾고 악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전면적으로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고 강력하게 벌여나아야 할때입니다. 그런만큼 이 투쟁을 미군기지가 있는 국한된 지역이나 주민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태를 묻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려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계급계층과 모든 단체들이 떨쳐일어나 힘차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부시방한투쟁때에 타올랐던 민중들의 반미투쟁열기를 더욱 고조시켜 기필코 미군기지전면반환을 실현하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확고한 각오와 굳센 의지를 가다듬고 이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나가야 할겁니다.

모든 투쟁이 다 그러하듯이 주한미군철수투쟁 역시 민중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승리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미군철수국민운동, 국민행동 등 반미운동단체들은 물론 모든 시민사회단체들, 모든 주민들이 미군기지전면반환과 주한미군철수라는 하나의 반미공동전선에서 서로 연대하고 연합하며 굳게 뭉쳐서 범국민적 운동으로 과감한 투쟁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각계층 민중은 온갖 불행과 고통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민족자주를 쟁취할 때까지 반미자주화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할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11일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동족공조 실현해야

남북은 지난해 6월 공동선언을 통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이것은 나라의 통일문제에 관한 남북의 입장을 명백히 밝힌 것으로서 온 겨레를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애국운동에로 불러일으키는 공동의 이정표로 되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외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갈라진 나라와 민족을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로 만들기 위한 민족내부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고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그 주인은 남북과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겨레이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민족내부에 있다.

예로부터 하나의 강토에서 살아온 우리 단일민족이 반세기이상이나 갈라져 서로 불신하고 대결해온 것은 외세때문이었다. 역사적 사실이 보여준 바와 같이 해방자의 탈을 쓰고 이남땅을 강점한 미국은 나라를 분열시켜 이남땅을 저들의 식민지 군사기지로 만들었으며 한반도의 분단과 남북대결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면서 계속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방해하고 대결과 긴장을 부추겨왔다.

우리 나라를 분열시킨 장본인 미국은 오늘도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다. 겉으로는 한반도의 완화와 통일을 환영하는척 하면서도 실지 행동으로는 그 실현을 각방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고 외세이다.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 근대사가 실증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외세의존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외세와의 공조를 해야 한다는 얼빠진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 외세와의 공조를 그만두고 민족공조의 길에 나서는 것은 외세의 민족분열 정책과 대결책동을 반대하고 화해와 통일의 길로 나가려는 명백한 의지의 표시로 된다. 동족공조는 오랫동안 쌓이고 굳어진 불신과 대결의 장벽을 허물고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민족이 공조한다는 것은 민족의 존엄과 이익, 조국통일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것을 외세가 아니라 자기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협의,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민족의 힘을 믿고 그 힘에 의거하는 동족공조만이 자주통일의 대문을 열 수 있는 길이다.

온 겨레는 동족공조의 타당성을 이미 실감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우리 민족은 세계를 놀래우는 격동적인 일들을 많이 해놓았다. 통일운동을 민족자주의 궤도에 확고히 진입시켰고 여러 갈래의 대화가 진행되고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한 제반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인, 언론인, 경제인, 예술인, 체육인, 이산가족 등 많은 사람들이 남북을 왕래하며 서로의 신뢰를 두터이 하였다. 남북을 연결하는 철길과 도로가 건설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시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변들이다.

동족공조냐, 외세공조냐 하는 것은 통일의 입장과 분열의 입장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통일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민족끼리 마주 앉아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내부문제를 외세에게 들고다니고 외세와의 공조를 운운하는 것은 반통일행위이다. 외세공조는 남북의 화합과 단결을 해치고 서로의 불신과 오해를 격화시키는 것뿐이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외세의존,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동족과 공조하는 확고한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은 외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내부에 있다. 남북이 6.15공동선언의 정신대로 민족자주의 입장, 동족공조의 입장에 확고히 설 때 화합과 단결은 이룩될 것이며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밝은 전망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성훈 - 구국전선
주체90, 4월 21일

반드시 계산돼야 할 미국의 죄악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미국이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는데요.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해 그 어떤 인정도, 사죄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반드시 계산돼야 할 미국의 죄악≫ 이런 화제로 얘기 나눴으면 합니다.

김현규 : 미군이 해방자의 탈을 쓰고 이 땅을 강점한 첫날부터 이 땅에서는 민중의 피가 흐르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미군이 감행한 만행을 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들만 간추려 보면 1946년 8월 15일 미군은 저들의 강제수탈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광주를 가고 있던 2600여명의 전라남도 화순탄광노동자들을 미14사단소속 부대를 동원해 포위한 다음 총을 쏘고 대검으로 마구 찌르고 전투기까지 동원해 총탄을 난사해 수백명을 학살했고 그리고 일주일동안이나 노동자들의 시체를 포위하고 운반하지 못하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미군은 1948년 6월 18일에는 독도주변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민들에게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해 200여명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미군은 1948년 4월 제주도민중항쟁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압학살만행을 감행해 온 제주도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제주도민중항쟁이 지속되자 미군살인귀들은 피에 주린 이리떼마냥 달려들어 제주도주민들을 총으로 쏘아죽이고 대검으로 찔러죽이고 밧줄로 목매달아 죽이고 생매장해 죽였고 바다에 내던져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미군은 불과 10여일동안에 제주도에서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7만5000여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여수와 순천에서 제주도에 대한 토벌작전을 반대하는 애국적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미국은 6000여명의 봉기군인과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1945년 한해동안에만 해도 미군에 의해 무려 10만9000여명의 주민들이 잔인하게 학살되었습니다.

사회자 : 미군의 무고한 양민들에 대한 살인만행은 지난 6.25전쟁을 도발한 후 더욱 잔인하고 야수적인 방법으로 감행되지 않았습니까.

김현규 : 미제침략군은 6.25전쟁을 도발했다가 이북의 인민군의 호된 반격을 받고 패전해서 짐승도 낯을 붉힐 치떨리는 만행을 감행했는데요. 미군은 충청북도 영동군 노근리일대에서 군사적 공격대상도 아닌 무고한 여인들과 늙은이들을 무차별적인 폭격과 기관총사격으로 학살하고 어머니의 참혹한 죽음앞에서 울부짖는 어린이들에게까지 총탄을 쏘고 노근리 철도에서, 철다리일대에서만 1천400여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군살인귀들은 서울에서만도 1만여명, 경기도 파주에서 600여명, 안성에서 500여명, 안양에서 400여명, 춘천에서 3만여명, 충청북도 충주에서 2000여명, 그리고 청주시에서 2060여명, 충청남도 공주에서 600여명, 부여에서 2000여명, 조치원에서 153명, 대전에서 4644명, 전라북도 전주에서 4000여명, 군산에서 400여명, 광주에서 3000여명 등 경향 각지에서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사회자 : 미국은 1950년 9월 16일에 인천항에 상륙했을 때에도 주변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김현규 : 인천상륙시 미제살인장군 맥아더가 미군에 내린 특별명령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서울을 탈취하라. 거기에는 **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다. 3일간 도시는 너희들 것으로 될 것이다. 너희들은 서울의 **들과 동료들을 차지할 것이다.≫

이 살인명령에 따라 미제침략군은 인천에 상륙한 첫날 *** 1300여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했고 서울을 강점하고서는 여성들을 닥치는대로 강간학살했는데 그 만행건수는 며칠사이에만도 1천건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미제살인귀들은 서울에서 12번이나 양민들의 머리가죽을 벗겨내 기념품으로 보관하는 소름끼치는 야만행위를 감행했습니다.

사회자 : 이러한 학살사건들은 6.25전쟁시기 미국이 이 땅에서 저지른 피비린내나는 집단적 대살육만행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미국이 지난 6.25전쟁을 도발한 후 1년기간에 이남지역에서 학살한 민간인 수가 무려 100여만명이상에 달한 것만 봐도 그걸 잘알 수 있죠. 이밖에 미국은 이북의 일부지역을 일시적으로 강점했을 때에도 무고한 주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김현규 : 자료에 의하면 미군은 평양에서만도 1만5000여명의 무고한 주민을 무참히 학살했고 신천에서는 50여일동안 전체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5380여명을 학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악군에서 1만9072명, 통화군에서 5545명, 은률에서 1만3000여명, 풍산군에서 5290여명, 해주시에서 6000여명, 남포시에서 1511명, 강서군에서 1591명, 안주시에서 5000여명,

선천군에서 1400여명, 철원군에서 1560여명, 대천시에서 1342명, 그리고 박천군에서 1400여명 등 이북에서 백수십만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국제여맹조사단이 1951년에 이북에서 미군들에 대한 만행을 조사하면서 미국이 임시로 점령하였던 지역들에서 감행한 대중적 학살과 대중적 **은 히틀러나 ******** 감행한 만행보다 더 악랄하다고 폭로했겠습니까.

사회자 : 미군은 지난 6.25전쟁기간 학교와 병원, 주택을 비롯한 민간인들을 목표로 폭격과 함수사격을 무차별적으로 가하고 심지어는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화학탄과 세균탄까지 사용해서 무고한 주민들을 수없이 살육했죠. 그뿐이 아닙니다. 미군은 전후에도 계속 이 땅에 둥지를 틀고 앉아 주인행세를 하면서 주민들을 사냥감으로 움직이는 과녁으로, 심심풀이로, 노리개로 삼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마구 학살함으로써 이 땅에서는 어느 하루도 주민들의 피가 흐르지 않은 날이 없었죠.

김현규 :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만 봐도 나물 뜯는 소년을 꿩이라고 하면서 쏘아죽인 1957년의 군산소년총격사건, 백주에 어린애를 업은 여인을 붙들어놓고 집단적으로 윤간한 끝에 살인한 의정부집단윤간사건, 그리고 1957년 6월 25일 미공군병기창 옆에서 구두닦이를 하던 14살난 ***소년을 도둑으로 몰아 칼로 무릎과 팔을 마구 찌르고 상자에 넣어 의정부에 있는 미군비행장까지 실어다 내던졌던 부평소년헬기궤짝사건, 또 나무하는 농민을 노루라고 하면서 쏘아 죽인 1962년의 파주나무꾼사살사건, 1970년 한 민가에 기어들어 주인부부를 돌로 머리를 내리치고 면도칼로 목을 잘라죽인 동두천부부살해사건, 1981년 6월 한 미군사병놈이 M16소총시험발사를 위한 과녁으로 조준사격해 여러 명의 주민을 죽인 총기난사사건, 그리고 1992년 10월 미군사병 마이클 놈이 경기도 동두천에서 여성을 강간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국부를 완전히 짓뭉개어 무참히 살해한 윤금이살해사건 등 주한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귀축같은 살육만행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저지른 만행들은 ***** 알려진 것만해도 무려 27만여건에 달하고 이로인한 인명피해는 **만해도 수십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자 : 인류역사에는 점령군의 만행자료들이 수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주한미군들처럼 무고한 주민들의 생명을 야수적으로 유린학살한 사례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미국은 이 땅에서 저지른 저들의 범죄행위와 민간인학살만행에 대해 그 어떤 인정도, 사죄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김현규 : 미국은 이 땅에서 저지른 미군의 만행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비열하게 책동하고 있는데요. 노근리학살사건 하나만 봐도 그것을 잘알 수 있죠. 미군이 노근리에서 양민들을 학살했다는 건 피해생존자들과 노근학살사건에 직접 참가했던 미군사병들의 증언에 의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노근리학살사건에 대해 사건의 실체는 인정하지만 발포명령여부와 피해규모 등은 확인할 길이 없다느니 민간인을 고의적으로 학살하려던 의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배상은 없다느니 전쟁상황에서의 우발적 사고니 뭐니 하면서 명백히 드러난 노근리학살사건 진실앞에서 아닌보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권옹호를 제창하는 미국의 추악한 나상입니다.

사회자 : 역사적 사실은 미군이 이 땅을 강점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메리카식인종으로써의 야수적 본성과 기질을 낱낱이 드러내놓고 수백만 우리 민족을 학살하는 피비린 죄악의 역사를 이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은 더 이상 미국의 침략과 살인, 약탈의 대상으로 될 수 없고 미군이 이 땅에서 저지른 범죄행위를 천으로 만으로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미군은 노근리를 비롯한 이 땅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감행한 양민대학살만행과 범죄행위에 대해 우리 민족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하며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끼쳐온 죄악에 대해 무조건 보상해야 합니다.

각계 민중들은 이 땅에서 살육과 분단의 원흉인 미군을 내쫓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반미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반드시 계산돼야 할 미국의 죄악에 관해 얘기 나눴는데요. 미국은 피를 즐기는 이리라는 걸 알고 신성한 이 땅을 피로 물들여온 철천지 원수 미국을 축출하는 투쟁을 과감히 벌여야 할겁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11일

한반도는 제2의 히로시마

서울통일연대, ≪서울지역 반미반전 결의대회≫ 진행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경고하는 사회단체, 대학생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온 국민이 월드컵 열기에 휩싸여 있는 지금, 언뜻 보면 핵전쟁에 대한 경고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불과 얼마전 부시방한때 까지만해도 한반도의 전쟁위험이 수없이 거론되었던 것을 보면, 이들의 목소리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듯하다.

11일 오후 2시 서울통일연대는 종묘공원에서 소속단체 회원, 청년학생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지역 반미반전 결의대회≫를 열고, 대한반도 핵침략전쟁 기도와 5.18 광주학살을 용인한 미국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미국이 올 초부터 북한을 ≪악의 축≫, 2002년을 ≪전쟁의 해≫로 규정하더니 급기야는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밝혀진 것처럼 실제 핵전쟁을 계획하는 등, 대테러전쟁의 확대를 통해, 한반도를 핵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또한 ≪1,000여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군기지가 한국땅에 있는 한 핵전쟁의 불씨를 언제나 안고있는 것이며, 한국의 자주권이 농락당할 수 밖에 없다≫며, 주한미군을 통한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규철 서울통일연대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우방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전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소파협정, 미군에 대한 재판권 행사가 거의 없는 점, 최근의 F-X와 LPP협정의 예를들어 한국의 대미예속성을 설명했다.

이천재 서울연합 상임의장은 ≪미국은 22년전 전두환이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할 때 암묵적 동의를 했다≫고 규탄한 뒤,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도 솔직한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있다≫며 광주항쟁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되지않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이천재 상임의장은 ≪이제 누가 뭐라해도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바로 우리 민족≫이라며 ≪외국군대가 주둔해있는 것은 민족의 평화와 자주를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며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뜻은 바로 미국이 이 땅에서 물러가야한다는 뜻≫이라며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동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이문옥 전 감사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 이문옥 전 감사관은 ≪나는 미국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미래

집회에 참가한 이문옥 후보

를 위해 투쟁해왔다≫며 ≪만약 서울시장이 된다면 용산기지를 되찾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연설해 참가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대북핵전쟁 책동 저지 △F-15K강매 미국반대 △미국에 의한 광주학살 진상공개와 사죄배상 △핵기지 미군기지 반환과 주한미군 철수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낭독하고 탑골공원까지 거리행진 후 집회를 마무리했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5/11

미군기지로 오염된 땅 ≪파주≫

녹색연합은 지난 7일부터 ≪미군기지 녹색순례≫를 시작했다. 녹색순례 네째날 벌인 파주지역 미군기지를 돌아본다.

10일 캠프 하우즈(미2사단 공병여단 44공병대대)와 캠프 에드워드(82 전투 지원중대), 캠프 스탠톤(수색대대)을 갔다. 캠프 하우즈는 2000년 8월 28일, 연료탱크 송유관 파손으로 경유 2천 리터가 유출돼 인근 하천을 오염시킨 곳이다. 사건 이후 3년이 다되도록 기름 범벅이 된 하천과 땅은 복구되지 않았다. 미군측의 대답은 간단하다.

≪예산이 없다.≫

복구비로 150억 원이 들 정도로 오염은 깊이 그리고 넓게 상처를 남겨 놓았다. 캠프 하우즈 뒷문으로 이어진 실개천에는 아직까지 기름이 떠돌고 있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던 하소연할 곳 없는 이 곳 주민들의 마음처럼 실개천을 감싸고 있는 땅은 기름에 절어 무지갯빛으로 반짝거렸다.

근처 농경지를 막대기로 휘저었더니 기름 냄새가 어지럽게 번졌다. 순박한 주민들은 이 땅에 소를 먹일 풀이라도 길러보겠다고 풀씨를 뿌렸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이 확인한 것은 단 한 포기의 풀도 이 땅에서 자라지 못한다는 것뿐이였다.

우리는 그 흙을 한 줌 움켜쥐었다. 기름 범벅 그 흙을 맨손으로 움켜쥐었다. 그리고 캠프 하우즈 담장 안으로 던져 넣었다. ≪이 땅을 복구해서 반환하라! 이 땅은 우리가 수천 년 지켜온 깨끗한 땅이다!≫

파주는 특히 농민들과 미군의 마찰이 많

기름으로 덮인 캠프 하우즈 뒤편 개울

았던 곳이다. 지난 해 가을에도 길가에 널어놓은 벼 나락을 미2사단(캠프 하우즈) 소속 탱크가 짓밟은 사건으로 농민들이 미군 탱크의 통행을 가로막고 시위를 벌였다. 이런 와중에 청년회장 신동국 씨가 강제 연행되자 농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미2사단 민사참모 윌시 소령은 오늘만 탱크를 보내주면 앞으로 한 달간 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다.

그러다 지난 달 13일, 미군 중사는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주민 우경복 씨의 얼굴과 가슴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는 도로에 쓰러진 우경복 씨를 그냥 두고 트레일러를 향해 외쳤다고 한다. ≪Let go!≫

우경복 씨는 움직이는 트레일러 앞머리를 붙잡아 더 큰 화는 면했지만 분노한 주민들이 항의하자 미군들이 해명이라고 한 대답은 차라리 웃음이 난다. ≪Let go!는 비키라는 뜻이다.≫ 우리는 얼만큼 더 바보가 되어야 하는가.

캠프 에드워드는 지난 해 12월 휘발유 유출로 토양오염 사건을, 올해 3월에 다시 주유시설 바닥 틈으로 1만4800리터의 휘발유가 누출됐음이 알려진 곳이다. 캠프 에드워드는 2000년 1월 5일, 폭발물 사건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폭발물이 설치되었다는 제보를 받아놓고 주민들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저희들끼리 내뺀 미군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파주 토박이이자 사진작가인 ≪현장사진연구소≫의 이용남(48) 소장의 말은 누구를 위한 군대인가, 누구를 위한 기지인가, 누구를 위해 이 끝없는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는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때로 경의선 철길과 나란히, 때로 철길을 가로지르며 걸어왔다. 그러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철길이 캠프 에드워드 안으로 뻗어 있는 것이 아닌가. 기름이나 자재 수송을 위해 경의선이 부대 안으로 들어오도록 철로를 부설했다는 것. 남과 북을 잇는 그 길, 달리고 싶지만 달릴 수 없는 그 철길이 미군 부대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여겨졌다.

주한 미군의 헬기 훈련에 대한 작전 계획은 저공비행이다. 그래서 작전을 수행하는 곳은 꼭 민가 근처이기 일쑤다. 헬기가 바로 집 위에서 낮게 계속 떠 있는 것. 그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고 인삼밭의 그늘막이 날아가기 일쑤다. 파주 광탄면 주민들은 이런 일을 연례행사로 치르고 있다. 해마다 피해는 계속되는데도 캠프 스탠톤은 미 국방부의 지시가 없는 한 이 계획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캠프 스탠톤이 남긴 또 다른 상처는 유류창고로 쓰였던 곳에 남아 있다. 이곳은 이제 반환예정지가 되었다. 이미 용도가 끝난, 필요 없는 땅은 이제 줄 테니 필요한 땅을 내놓으라는 것이 연합토지관리계획의 본질인 것이다.

기름을 취급했던 이 땅이 온전할 리 없다. 먼저 이 땅의 오염 정도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를 가지고 복구계획을 세워야 한다. 반환은 그것이 전제되어야 그나마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곳이 다시 주민들의 깨끗한 논밭으로 돌려지는 날을 그리며 네쨋날 미군기지 순례의 길을 닫는다.

홍욱표기자
오마이뉴스 2002/05/11

캠프 스탠톤 정문

통일혁명운동이론의 논제와 토론 (8)

서론

논제 1 -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성격과 임무

논제 2 -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와 그 역할

논제 3 -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역량편성

논제 4 -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와 그 역할

▶ 논제 5 - ≪두 개의 전선론≫에 대한 보완, 수정
전국적통일전선과민족민주전선
민족자주민족대단결전선과민족자주민주개혁전선

논제 6 - 민족해방혁명의 관점에서 고찰한 미군철거의 의의

논제 7 - 선군혁명전략의 당면목표와 6.15공동선언의 지향

논제 8 -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의 자주적 민주정권의 지위와 임무

논제 9 -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

논제 10 - 올해의 선거정국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응

결론

논제 5 - ≪두 개의 전선론≫에 대한 보완, 수정

전국적 통일전선과 민족민주전선

조선혁명의 수령이시며 조국통일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 38(49)년 6월 북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하신 역사적인 보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에 대하여≫에서 전국적인 통일전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강령적 교시를 주시였다.

≪조국을 사랑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애국적 인민들, 특히 남북조선의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을 하나의 민주주의적 역량으로 총집결하기 위하여서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50(1961)년 9월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사업 총화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리하여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의 기치 밑에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적 각 계층들을 집결하여야 하며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주의력량과 북조선의 애국적 사회주의력량과의 단합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6.15공동선언으로 조국통일의 이정표를 밝혀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 87(1998)년 4월 18일 남북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 50돌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노작,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서 조국전선의 모체가 되었던 ≪남북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해방직후의 복잡다단한 정치정세속에서 극소수 민족반역자들을 내놓고는 남조선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완고한 반공민족주의자들까지 참가한 폭넓은 민족적 대회합이 마련되고 이 회합에서 일치한 합의를 이룩하여 거족적인 애국투쟁을 벌이게 된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노선과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이었으며 통일애국역량이 이룩한 역사적인 첫 승리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 86(1997)년 8월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조국통일3대헌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조국통일3대헌장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혁명이론을 더욱 깊이 연구한 후 발표된 ≪열 가지 논제≫에서는 전국적 통일전선과 민족민주전선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복무하는 통일전선은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에 의하여 형성되는 통일전선입니다. 이 통일전선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복무하는 민족민주전선입니다.≫(3.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역량편성)

≪민족민주운동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민족민주전선≫이라는 개념은 신식민지에 존재하는 지역통일전선으로 협소하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전영토에 존재하는 광대한 통일전선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5. ≪두 개의 전선론에 대한 보완, 수정)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복무하는 통일전선은 신식민지에만 존재하는 지역통일전선이 아니라 혁명기지까지 망라하는 전국적 통일전선으로 확대하여 사고해야 합니다.≫(5. ≪두 개의 전선론에 대한 보완, 수정)

한편 최성원동지는 ≪이론문제≫에서 밝힌 ≪민족통일전선≫과 ≪민족민주전선≫의 개념이 운동대오에 정립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 전제에서 ≪민족민주전선≫의 개념을 확대해석한 것이다. 참고로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은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위업이 아니라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 통일전선의 강령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지난해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전국적 범위에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전선과 신식민지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지역통일전선을 구분하고 전자를 ≪민족통일전선≫으로, 후자를 ≪민족민주전선≫이라고 논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논문에서는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 통일전선에 대하여 논하면서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기치로 든 높은 단계의 통일전선과 6.15공동선언을 기치로 든 낮은 단계의 통일전선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비록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들이 각기 조금씩 다르고 강조점이 달라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두 개의 전선론≫은 통일전선에 관련한 이해에서 대체로 전반적인 동의를 얻은 이론으로 일단 정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5. ≪두 개의 전선론≫에 대한 보완・수정)

첫째, 전국적 통일전선은 민족통일전선이다. 민족통일전선은 전국적 범위에서 형성되는 통일전선이다. 민족통일전선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 조국통일운동이 승리할 때까지 존재하는 전략적인 통일전선이다. 민족통일전선은 북남민중만이 아니라 해외동포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보고, 전국적 통일전선을 북남통일전선(혁명기지와 식민지의 민중을 묶어세우는 통일전선)의 의미로 볼 때에는 민족통일전선은 전국적 통일전선을 내포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물론 전국적 통일전선을 해외동포들까지 포괄하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민족통일전선과 전국적 통일전선의 개념에는 차이가 없다.

둘째, 지역통일전선은 민족통일전선의 부분이다. 지역통일전선은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부분이다. 민족통일전선이자 전국적 통일전선이므로 지역통일전선은 전국적 통일전선의 지역적 부분이다. 지역통일전선은 민족통일전선, 전국적 통일전선에 해소, 통합되는 잠정적인 형태의 통일전선이다. 민족통일전선, 전국적 통일전선이 통일혁명의 승리까지 존재하는 전략적인 통일전선이라면 지역통일전선은 전국통일전선에 통합될 때까지 존재하는 전술적인 통일전선이다.

세째, 지역통일전선은 민족민주전선이다. 지역통일전선과 (남측범위의)민족민주전선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지역통일전선이 반미강령을 들었을 경우에는 민족민주전선과 일치한다. 반면 지역통일전선이 반미강령이 아니라 6.15공동선언강령을 들었을 경우에는 구별된다. 이 경우 민족민주전선은 민족민주세력으로 한정된다. 민족민주세력은 지역통일전선을 건설하는 주체세력,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을 건설하는 주체세력이다. 민족민주세력은 6.15공동선언강령의 지역통일전선과 민중생존권쟁취보안법철폐강령의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주체세력이다. 또한 민족민주세력은 민족자주민족대단결통일전선과 민족자주민주개혁통일전선을 통합하고 나아가 반미자주강령으로 발전시켜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을 건설하는 주체세력이다. 민족민주세력의 주도적 역할에 의하여 지역통일전선은 민족민주전선으로 전화발전한다.

네째, 민족해방통일전선은 민족민주전선이다. 민족해방통일전선과 민족민주전선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른바 ≪구식민지≫에서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는 통일전선을 민족해방통일전선이라고 부르며

→

이른바 ≪신식민지≫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통일전선을 민족민주전선이라고 부른다. 민족해방통일전선이나 민족민주전선이나 모두 본질상 민족통일전선이다. 민족해방통일전선과 민족민주전선은 제국주의의 괴뢰정권을 반대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구별된다. 현대제국주의의 특징 중 하나가 신식민주의 통치방식이므로 현시대의 민족통일전선의 기본형태는 민족민주전선이다.

다섯째, 민족민주전선은 민족통일전선이다. 민족민주전선은 민족통일전선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분단되지 않은 식민지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민족민주전선은 곧 민족통일전선이다. 이 경우에는 민족민주전선과 민족통일전선이 완전히 일치한다. 분단된 조건에서 민족민주전선은 민족통일전선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민족민주전선을 민족민주강령의 지역통일전선으로 규정할 경우 민족민주전선과 민족통일전선은 지역적 범위의 통일전선과 전국적 범위의 통일전선으로 구별된다. 한편 민족민주전선을 전국적 범위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통일전선으로 규정할 경우 민족민주전선과 민족통일전선은 일치한다.

여섯째, 민족민주전선은 전국적 통일전선이다. 민족민주전선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통일전선이므로 전국적 통일전선이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전국적 범위에서 수행되는 혁명이므로 그 혁명을 수행하는 민족민주전선도 전국적 범위의 통일전선으로 된다. 이 경우 민족민주전선은 지역통일전선을 내포하는 민족통일전선과 동일한 개념이다. 다시 말하여 민족민주전선은 혁명기지와 식민지를 모두 포괄하는 전국적 통일전선, 민족통일전선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민주전선은 과도적으로 존재하는 전술적인 통일전선이 아니라 통일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존재하는 전략적인 통일전선이다. 참고로 ≪민족민주전선≫을 전국적 통일전선으로 규정하는 조건에서 ≪민족민주세력≫도 전국적 범위의 주체로 규정하여야 맞을 것이다. ≪열 가지 논제≫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전국적 범위의 혁명과 지역적 범위의 혁명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킨 혁명, ≪민족민주전선≫을 그 혁명을 수행하는 통일전선으로 규정한 이상, 개념과 논리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민족민주세력≫이라는 개념도 ≪신식민지≫만으로 한정해선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측의 민족민주세력을 표현할 때에는 ≪남측민족민주세력≫이 정확한 개념이 될 것이다. 물론 ≪민족민주전선≫을 남측에 한정된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처럼 ≪민족민주세력≫도 남측에 한정된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민족자주민족대단결전선과 민족자주민주개혁전선

조선혁명의 수령이시며 조국통일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 38(49)년 6월 북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하신 역사적인 보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에 대하여≫에서 전국적인 통일전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강령적 교시를 주시었다.

≪조국을 사랑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애국적 인민들, 특히 남북조선의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을 하나의 민주주의적 역량으로 총집결하기 위하여서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여야 합니다.≫

통일혁명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년 8월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온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자기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람은 북에서 살건 남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모두다 사상과 이념, 신앙과 정견, 계급과 계층의 차이에 관계없이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야 하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혁명이론을 더욱 깊이 연구한 후 발표된 ≪열 가지 논제≫에서는 통일연대와 민중연대에 대하여, 그리고 조국전선과 전국적 통일전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신식민지에서의 지역통일전선은 지금 형성기를 경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식민지에서 형성되고 있는 지역통일전선의 조직형태를 살펴보면, 통일애국역량은 ≪통일연대≫로 집중되고 있고, 자주적 민주역량은 ≪민중연대≫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두 개의 역량이 두 개의 조직형태로 병존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신식민지에서의 잠정적 현상이며, 통일전선운동이 발전하는 추세에 따라 장차 유일적인 통일전선조직으로 결합될 것입니다.≫(5. ≪두 개의 전선론≫에 대한 보완, 수정)

≪형성기를 경과하고 있는 지역통일전선은 각이한 자주적 민주역량과 통일애국역량이 연대・집결한 전선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선명한 기치를 들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형성기의 지역통일전선에 연대・결집한 자주적 민주역량과 통일애국역량이 당면하여 들어야 할 기치는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이며, 그 강령은 민족자주, 민주개혁, 6.15공동선언의 실현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신식민지의 지역통일전선은 일정기간 동안 민족자주, 민주개혁, 6.15공동선언의 실현을 위하여 연대・결집된 통일전선으로 형성되어 갈 것입니다.≫(5. ≪두 개의 전선론≫에 대한 보완, 수정)

≪1949년 6월에 평양에서 결성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은 조선노동당을 영도적 구심체로 하여 형성된 전국적 통일전선조직이였습니다. ≪조국전선≫은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통일애국역량과 자주적 민주역량을 전국적 범위에서 하나의 역량으로 연대・집결시킨 전국적 통일전선조직이였습니다. 그 전선조직은 미제가 자행한 분할점령과 탄압말살책동 때문에 더 이상 강화・발전되지 못하고, 미완의 전국적 통일전선조직으로 존재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형성되고 있는 전국적 통일전선은 ≪조국전선≫의 역사적 경험을 계승・발전시킨 새로운 통일전선으로 될 것입니다.≫(5. ≪두 개의 전선론≫에 대한 보완, 수정)

첫째, 통일연대와 민중연대는 모두 지역통일전선이다. 통일연대와 민중연대는 모두 지역적 범위의 혁명에 복무하는 통일전선이다. 통일연대와 민중연대는 모두 지역적 범위에서 각각 통일애국역량과 자주적 민주역량을 결집한 통일전선이다. 통일연대와 민중연대가 모두 지역통일전선이므로 그 주체세력은 남측민족민주세력이다. 실제로 민족민주세력은 통일연대와 민중연대를 건설하는 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둘째, 통일연대는 민족자주민족대단결전선이고 민중연대는 민족자주민주개혁전선이다. 통일연대와 민중연대는 모두 지역적 범위에서 각각 통일애국역량이 민족자주민족대단결강령과 자주적 민주역량이 민족자주민주개혁강령 아래 결집한 통일전선이다. 통일연대와 민중연대는 민족자주강령이 같고 민족대단결과 민주개혁의 강령에서 다르다. 민족자주강령은 조선혁명의 본질인 민족해방혁명과 관련이 있는 강령이며 민족대단결과 민주개혁의 강령은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강령이다. 실제로 통일연대와 민중연대는 구성단체의 대다수가 동일하다.

세째, 통일연대와 민중연대는 통합되어야 하고 통합될 것이다. 통일연대와 민중연대는 지역적 범위의 혁명에 복무하는 지역통일전선으로서의 성격이 같다. 통일연대와 민중연대는 민족자주강령이 같고 다른 강령들도 상호보완적 의의가 있는 강령이다. 통일애국역량과 자주적 민주역량은 하나의 역량이 다르게 표현된 개념일 뿐이다. 실제로 통일연대와 민중연대의 구성단체의 대다수가 중복된다. 하나의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전국적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전제이다. 그러므로 통일연대와 민중연대는 통합되어야 하고 통합될 것이다.

네째, 통일연대와 민중연대는 통합한 후 민족민주전선으로 전화발전할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의 강령은 반미자주, 민주개혁, 민족대단결이다. 통일연대와 민중연대를 통합한 큰 덩어리의 지역통일전선의 강령은 민족자주, 민주개혁, 민족대단결이다. 민족자주는 반미자주보다는 낮은 수준의 강령이나 반미자주를 내포하고 있는 강령이다. 통일연대와 민중연대가 통합된 민족자주민주개혁민족대단결전선이 반미자주민주개혁민족대단결전선으로 전화발전하면 그것이 곧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이다. 오늘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의 건설경로는 분산된 두 지역통일전선을 통합한 후 그 단일한 지역통일전선이 강령을 상향발전시키는 방식이다. 양적으로 통합한 후 질적으로 비약하는 방식인 것이다.

다섯째, 전국적 통일전선 건설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통일연대와 민중연대가 통합되는 단계이다. 두 지역통일전선은 하나의 본질이 두 개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현재의 과도적 상태를 지양하며 하나의 지역통일전선으로 통합될 것이다. 통일연대라는 민족자주민족대단결전선과 민중연대라는 민족자주민주개혁전선이 통합되면 하나의 민족자주민주개혁민족대단결전선으로 된다. 2단계는 민족자주강령의 지역통일전선이 반미자주강령의 지역통일전선으로 발전하는 단계이다. 민족자주민주개혁민족대단결전선은 반미자주민주개혁민족대단결전선으로 발전한다. 이 반미자주민주개혁민족대단결전선이 바로 남측지역의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이다. 3단계(최종단계)는 지역통일전선이 전국적 통일전선에 해소, 통합되는 단계이다. 반미자주강령의 지역통일전선, 곧 남측민족민주전선이 건설되어야 비로소 전국적 통일전선이 건설될 수 있다. 반미자주강령의 지역통일전선은 반미자주강령의 전국적 통일전선의 부분이며 전제이기 때문이다. 반미자주강령의 전국적 통일전선은 미완의 전국적 통일전선인 ≪조국전선≫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명실상부한 하나의 전국적 통일전선, 민족통일전선, 민족민주전선이 될 것이다. 전국적 통일전선이 건설되면 통일혁명은 결정적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
(통일여명 편집국 보도 87호)